

March
2011.3

ISSUE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전개와 성공전략 / 국제 유가의 상승이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 경제일지 / 경제지표



충청남도



충남발전연구원

월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2011년 3월호

발 행 인 안희정 · 박진도

편집위원장 권희태 · 성태규

편집위원 윤호익, 임재영, 고석철

집필진 총괄 백운성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임형빈, 김윤아

경제일지 김석필, 박용진, 김범수

외부집필진 권오창(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발행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락처 (041) 840-1114, 1165 팩스(041) 840-112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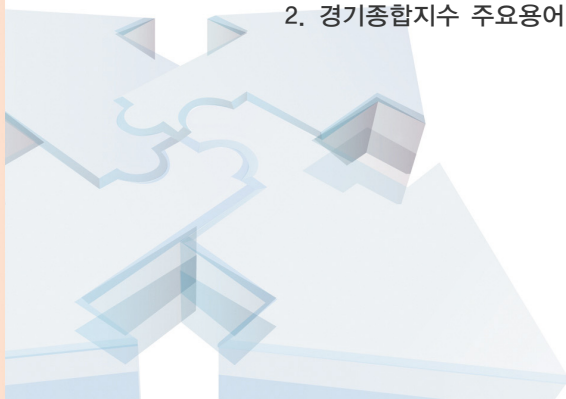
ISSUE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전개와 성공전략	3
	국제 유가의 상승이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16

경제동향	경제동향 (요약)	25
	1. 경기	5. 고용
	2. 산업활동	6. 금융
	3. 소비 · 물가	7. 건설 · 부동산
	4. 수출입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47
-------------	--------	----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55
	2. 충남 주요경제지표	57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59

부록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추이	74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76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전개와 성공전략

— 500만 충청인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한 대장정 —

권 오 창 |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사무총장

논의에 들어가면서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에 거주하는 500만 충청인들의 경제적 번영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는 충청광역경제권을 설정하고 발전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충청광역경제권의 발전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출범한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했수로는 3년차를, 실제로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면에서는 2년차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전개 및 추진과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이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궁리해보는 것은 그 의미가 아주 크다 할 것이다. 특히 필자는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2009년 9월 21일 발족할 때부터 이 위원회의 실무를 책임진 사무총장으로서 소임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정책과 차별화 된 현 정부의 3차원적 지역개발전략으로 일컬어지는 신 지역발전정책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모태가 바로 다른 표현인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라는 신 지역발전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 지역발전정책 비전

먼저 지역발전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화 발전과 지역 간의 상호협력 증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세계는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많은 국가들이 국경 없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토의 광역화와 권력·행정의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그리고 국토전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차원의 공간적 지역발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영국은 9개의 광역경제권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자체적인 지역경제발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기존의 22개 레지옹을 대규모 하천유역을 중심으로 6개 대 광역권으로 재편을 추진 중이고 일본은 8개 광역지방계획구역으로 광역화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탄생한 현 정부는 선진화를 통한 세계 일류국가를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실용적인 신 지역발전정책을 표방하였다. 신 지역발전정책의 비전은 앞서 소개한 해외 선진국의 정책동향과 우리나라의 지난 역대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거울삼아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창조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4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정책방향은 첫째로, 행정구역 단위의 분산투자에서 벗어나 세계화에 대응하여 경쟁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둘째로는 특색 없는 획일적 개발에서 벗어나 지역별 개성을 살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특성화된 지역개발, 셋째, 중앙주도의 하향식 개발에서 벗어나 지방분권과 자율을 통한 지자체 주도의 발전, 마지막으로, 지역 간 대립과 갈등에서 벗어나 연계협력으로 지역 간 협력·상생을 통한 동반발전이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기초생활권(163개 시·군), 광역경제권(5+2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4+a 초광역권)으로 나누어 다차원적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전략을 마련하였다.

기초생활권 발전정책은 국민이 어디에 살든지 최저한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꿈이 있고, 살고 싶은 지역창조’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 지역 스스로 지역 부존자원의 성장동력화, 향토·지역 연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역사·문화의 장소 마케팅, 지역 리더의 활성화, 지역 간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국가가 그 지역의 지역의료·

복지 여건 개선, 지역 문화·복지 수준 향상,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 지역의 녹색성장, 지방교육의 활성화 지원 등을 하여 지역과 국가가 함께 지역의 자조적 성장 잠재력 발굴과 동시에 지역 주민의 최저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그리고 기초생활권을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으로 구분하여, 농산어촌형은 인접한 지자체와 통합적 개발을 추진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며, 도농연계형은 중심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의 연계·발전을 추진한다. 도시형은 구도심의 재생 등 도시의 활력을 증진토록 특화발전을 추진한다. 그리고 기초생활권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자율편성제도와 포괄보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권 중에서 특히 여건이 불리한 특수상황지역, 일반농산어촌, 도시활력증진지역, 성장촉진지역(70개 시·군)에 대하여 적용한다.

초광역개발권 정책은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중장기 개방형 국토발전전략으로서 대외적으로는 동북아시아 및 통일에 대비한 미래형 국토전략이고 대내적으로는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에 기반을 둔 지역 간 상생발전전략이다. 초광역개발권은 대외개방형 4대 벨트와 내륙특화벨트로 설정한다. 대외개방형 벨트는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남해안 선벨트, 서해안 신산업벨트, 남북교류·접경벨트가 있으며, 내륙특화벨트는 내륙첨단산업벨트, 백두대간벨트, 대구-광주 연계벨트 등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중앙정부에서 지정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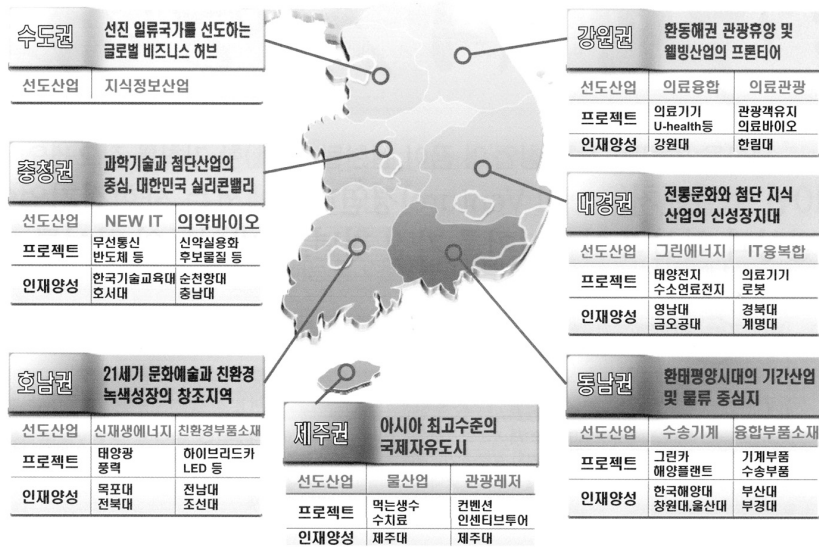
광역경제권 정책은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정책이다. 국경 없는 무한경쟁 속에서 세계 각국이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하여 지역위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위하여 광역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도 뒤늦었지만 100년 전에 확정된 지방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광역차원의 지역발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2~3개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규모의 경제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입된 것이 바로 광역경제권 정책이다. 광역경제권은 인구, 산업, 인프라, 역사, 문화적 동질성, 지역정서 등을 고려하여 16개 시·도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충청권(대전·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대경권(대구·경북), 동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권, 제주권 등 5+2(7개) 광역권으로 설정하였다.

광역경제권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9~2013 기간 중 50조원을 투자하여 인

프라 중심의 30개 선도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이들 선도프로젝트는 광역경제권 내 중심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망 확충, 광역경제권 간 연계강화,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지방공항과 거점항만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광역경제권별로 발전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래의 시·도 중심의 전략산업육성 위주 정책을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 중심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선도산업 육성정책은 권역별로 1~2개 핵심 신 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고 연구개발, 표준, 특허, 국제협력, 브랜드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6개의 선도산업지원단을 설치하였다. 광역경제권별 인재양성사업은 선도산업 지정과 연계하여 해당분야 인재양성을 담당할 지방거점대학을 지정·육성하는 정책이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권의 12개 선도산업에 대하여 20개 대학 21개 인재양성센터를 선정하였다.

광역권 선도프로젝트



지금까지 소개한 현 정부의 신 지역발전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부는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중앙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지방단위에는 7개의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청와대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지역발전비서관을 신설하고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고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사업인 24개 시·군·구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편성과 포괄보조금 제도도 도입하였다.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발전 재원확충을 위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신설하였다.

포괄보조금 대상사업(24개 사업군)

구 분	사 업 군 명	
사도 자율편성 (19개 사업군)	1.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2. 관광자원 개발 3. 체육진흥시설 지원 4. 지역문화사업 육성지원 5.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6. 농어업기반 정비 7. 지역연고산업 육성지원 8. 청소년시설 확충 9. 상수설시설 확충 및 관리 10.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11. 해양 및 수자원 관리 12. 대중교통 지원 13. 민자유치 접속도로 지원 14. 지역거점 조성지원 15. 문화유산관광자원화 16. 농어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17. 산림경영자원 육성 18. 산림휴양, 녹색공간 조성 19.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 도매물류센터 지원
사군 자율편성 (5개 사업군)	20. 성장 촉진지역개발 21. 특수상황지역개발 22.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	23. 일반농산어촌개발 24. 도서지역식수원개발

그리고 중앙의 지역발전계획과 광역권별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및 동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제도화하였다.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체제와 그 전개과정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체제는 현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정책도입에 따라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 3개시·도가 속한 충청권을 대상으로 하여 전개되어 왔다. 그리고 이 체제의 전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년 9월 21일 발족된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주도해왔다. 따라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체제를 설명함에 있어 그 주체인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와 그 주요업무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먼저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 구성은 충청권의 대전·충북·충남의 3개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고 14인의 광역위원 중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추천한 2인을 제외하고는 충청권 3개시·도의 광역

의회 의원, 3개시·도 산하 연구원장, 3개시·도 테크노파크원장 등 절대 다수가 충청권 지역인사들이다. 그리고 사무총장을 공동위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사무총장은 국비예산에서 보수를 받는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충청광역경제권의 발전계획, 예산·결산 심사, 각종 규정 제·개정에 대한 심의·의결 기관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광역위의 사무국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지식경제부의 정책지휘 및 예산·복무에 대한 감독을 받고 있다. 그리고 광역위 사무국 직원 13인 중 6인은 3개시·도에서 2명씩 파견된 공무원이고 그 중 2인은 사무총장 다음 직위인 2개 과장 직위를 부여 받아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수립하는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과 동시행계획, 장기발전구상 등은 광역위와 3개시·도가 공동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다. 아마도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한국 행정기구 역사상이나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조직이라 할 것이다. 특히 광역위의 설치 근거가 정부 조직법이나 지방자치법이 아닌 국토균형발전특별법인 점도 특이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규정된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이하 충청광역위)의 기능은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5년 단위) 및 동계획의 시행계획(1년 단위) 수립, 충청권 내 3개시·도 간 협력사업의 발굴, 충청권 내 3개시·도간 연계·협력사업에 대한 재원의 분담, 충청권 광역경제권 사업(광역계정사업, 지역개발계정사업)의 관리·평가, 기타 충청광역경제권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계획, 연구, 조사, 조정, 관리, 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시·도, 시·군과 달리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다. 이와 같은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 해온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체제의 그 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9~2013)을 3개시·도와 공동으로 수립하였다. 충청권 3개시·도를 묶어 한 개의 경제권으로 하여 수립된 최초의 충청권 발전계획이다. 3개시·도간의 의견이 각기 달라서 계획수립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권 3개시·도 파견공무원, 연구기관과 테크노파크의 전문가, 충청권 학계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계획을 수립하였다. 계획의 최종목표는 충청광역경제권을 첨단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신 성장동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첨단과학기술의 NEW HEART」

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목표를 네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로, 선도산업·전략산업·특화산업을 연계한 첨단과학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정보통신(IT)과 의약·바이오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중심기반을 조성하여 충청권을 대한민국의 정보통신(IT), 의약바이오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글로벌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로 충청권을 글로벌 과학기술 휴먼리더 양성 및 과학기술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셋째, 충청권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성장 거점을 연계하는 광역경제, 도시권 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통·물류체계 조성을 통하여 충청권 내의 광역성장거점 연계 교통, 물류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마지막 넷째로 충청권 3개시·도를 연계하는 관광산업기반 조성 및 신발전지역 녹색산업육성을 통하여 충청권을 문화·환경이 융합된 신 발전지역으로 창출하는 것이다.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은 크게 광역경제권의 발전 역량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 방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전략산업의 육성,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발전거점의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 및 자원 이용, 여타 광역경제권과의 연계협력 분야를 총 망라하여 충청광역경제권의 발전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활력 넘치는 지역공동체 형성은 개성 있고 살기 좋은 충청광역경제권 지역발전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특색 있는 지역문화와 매력 있는 관광 진흥,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인 농·림·축·수산업 육성, 지역산업의 기반강화 및 활성화, 더불어 누리는 생활·복지 환경조성, 깨끗하고 안전한 푸른 충청권 구현, 연안 환경보전과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중소도시재생과 신발전지역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시·군 간의 연계협력을 활성화 하여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군간 자율 협의를 통하여 역사성·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협력계획을 문화·관광·체육 분야, 농림·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보건·복지 분야, 환경 분야, 수자원·교통 분야, 기초생활기반 확충분야 별로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다. 이들 사업들은 정부의 포괄보조금 대상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할당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의 여건과 개발의지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필요한 사업을 자율 선정, 예산을 편성하는 포괄보조금 지역개발 전략을 추진하게 된다.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상의 충청권의 공간구상을 살펴보면 1 허브와 5대 산업발전 축인 바,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산업, 행정, 문화의 1 허브와 북부지

역 거점산업단지를 연계한 첨단부품소재·에너지 산업발전축, 남부지역의 지역특화자원을 연계한 그린산업발전축, 해양·백제·과학·중원문화를 연계한 문화·관광 산업발전축, 서해안 지역의 자동차·기계를 연계한 메카트로닉스산업 발전축, 그리고 충북 오송의 바이오, 오창의 IT, 음성의 그린테크를 거점으로 대전·강원·전북을 연계하는 첨단 내륙벨트 등 5대 산업발전축이다.

다음은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들 수 있다. 2010년 시행계획을 3개시·도와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였고, 2011년 시행계획도 수립하여 금년 중 충청권 3개시·도와 시·군,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 충청광역경제권 4개 인재양성센터, 충청권 3개시·도의 테크노파크가 계획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시행계획의 내용 중 충청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방안(광역계정)으로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 시·도별 전략산업의 육성,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발전거점 육성, 교통·물류망 확충, 문화·관광육성 및 자원이용 효율화, 타 광역경제권과의 연계·협력 방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충청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방안(지역계정)에는 문화·관광·체육 분야, 농림·수산 분야, 산업·중소기업 분야, 보건·복지 분야, 환경 분야, 수자원·교통 분야, 기초생활권 종합개발 분야가 총망라 되었다. 2010년 시행계획에는 282개 사업 7천 2백 22억 천 5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2011년 시행계획에는 총 380개 사업 1조 8천 823억 천 6백만원 사업 집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충청광역경제권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010년에 충청광역경제권 2009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광특회계)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 2011년에도 2010년 충청권 광특회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는 평가의 타당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가의 내용은 사업추진의 타당성, 구체성, 적정성, 효율성, 사업성과 등이었다. 평가대상은 2009년 시행계획과 2010년 시행계획 사업 중에서 광특회계(지역계정, 광역계정)로 지원된 사업으로 국한하였는바, 그 중 지역계정은 충청권 3개시·도, 시·군이 자율 편성하는 포괄보조금사업 및 내역사업을 대상으로, 광역계정은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과 충청광역경제권 4개 인재양성센터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 보고한다.

충청광역경제권 3개시·도간의 연계·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광역경제권 연계·협력 사업은 현 정부의 신 지역발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

각된다. 신 지역발전정책의 키워드는 세계적인 분권화, 광역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시·도간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설정된 광역경제권이다. 광역경제권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지역발전정책의 추세가 종래와 같이 도로·철도·항만이나 건설하고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하드웨어 위주에서 지식 집약적이고 기술개발과 문화·관광으로 이어지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도입된 제도이다. 이에 따라 설정된 광역경제권 내에서 시·도 간에 연계·협력을 해야 그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래야만 광역 단위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총 동원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역경제권 정책에서는 시·도의 전략산업,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기초단체간의 창조지역 사업의 공동개발·추진 등 모든 분야에서 아이디어와 기술을 대상으로 한 연계·협력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다.

2010년에는 충청광역경제권에서 3개시·도와 지방비 매칭 절차가 이루어진 91개 연계협력 사업을 제안 받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지식경제부에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6개 사업이 국고지원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이 사업들은 매년 사업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문제가 없으면 3년간 계속 국고지원을 받게 된다. 2011년에는 현재 3개시·도에서 제안을 받아 자체적인 선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각 시·도의 선정절차가 완료되어 제안사업들이 충청광역위에 제출되어 오면, 광역위에서는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6개 연계·협력사업을 순위를 정하여 선정하고, 이를 지식경제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에서는 전국 단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5+2 광역경제권별 연계·협력사업(전국적으로 10개 사업)을 확정하고 국고지원을 하게된다.

2010년 충청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현황

- 충청권 패키징 산업 육성 사업
- 비금속 광물자원을 활용한 저탄소산업 육성사업
- 생체진단 의료기기용 핵심센서 및 키트개발사업
- 미래사회적응을 위한 대 충청권 녹색생태 관광사업
- 태양전지 효율 극대화를 위한 전자전달 증대장치 사업
- New IT 부품과 부품산업용 금형 및 열처리 기술 지원 사업

충청광역경제권에 대한 조사·연구를 한다. 충청광역경제권에 대한 좋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충청권에 대한 인문, 사회, 경제, 문화적인 조사·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는 2010년에 충청권의 산업별 현황과 구조, 동향 및 발전추세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2011년에는 충청권이 보유하고 있는 기후·토질 등 자연적, 물적, 역사문화적, 산업적 자원현황을 조사·연구하게 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앞으로 충청권 3개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타 광역권과의 협력방안 강구 등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충청권 3개시·도에 거주하는 충청주민들의 충청인으로서의 일체감과 공동체 의식의 정도, 삶에 대한 가치관, 공동지역발전에 대한 생각과 자세를 2011년에 3개시·도, 3개시·도 연구원과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정책 입안자와 주민들 간의 정책에 대한 미스매치(정합성 불일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충청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육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선도산업지원단과 인재양성센터, 선도산업 참여기업간의 소통·협력채널을 구축·운영한다. 현 정부의 신 지역발전정책상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 육성전략은 지역발전, 특히 지역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특화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충청광역경제권의 경우, 운 좋게도 장래 가장 촉망받게 될 New IT와 의약바이오가 선도산업으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모든 산업은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3차 산업이든 New IT와 의약바이오와 융·복합이 이루어지면서 산업 간의 장벽이 없어지게 될 전망이다. 그리고 New IT와 의약바이오 사업 자체도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산업분야라고 여겨진다. 최근 국내 굴지의 기업그룹들이 이 두 개 분야에 수십조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부가가치 창출과 수출, 고용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인력공급)과 선도산업 참여기업(인력수요) 간의 호흡이 잘 맞아 상호 간의 미스매치가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사실 모든 경제 분야의 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서로 만나서 이해와 대화를 해 나간다면 해소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소신이다. 2010년부터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상호 이해와 소통이 많이 이루어져 왔다.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

단의 분석에 의하면, 목표연도인 2012년 4월 말이면 당초목표인 매출 2조 5,700억원, 수출 21억불, 고용 2,500명이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 계속 인력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마주 앉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본다.

번영과 행복을 향한 충청광역경제권발전체제의 성공전략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많은 재정을 투입하여 지역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충청광역경제권을 대한민국의 첨단산업과 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육성하여 500만 충청 주민들에게 경제적 번영과 행복한 삶을 안겨 주기 위함이다. 금년 2011년만 해도 시행계획상에 충청광역경제권의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140건 사업에 7,183억원, 충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40건 사업에 1조 1,640억원, 총 380개 사업에 1조 8,823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에서는 금년 2011년이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체제상 매우 중요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5개년 계획인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을 집행하는 2년차 해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3년 계획사업인데 금년이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수출, 고용창출 면에서 정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확실한 성과를 거두어야 하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은 민선 5기의 선거가 있던 해로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충청권 지역발전 업무를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2011년은 민선 5기 출범 이 후 공동위원장인 대전광역시장, 충청북도지사, 충청남도지사께서 충청광역경제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시고 두터운 뒷받침 의지를 밝히시고 있어 금년이야말로 본격적으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변 여건을 고려한 앞으로의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체제의 성공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체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충청광역위와 충청권 3개시·도, 시·군과의 원활한 정책협의, 소통채널 구축, 업무관련 정보와 자료의 공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충청광역위 사무총장, 3개시·도 기획관

리실장(사안에 따라서는 3개시·도 연구원장, 테크노파크원장도 참석)이 참석하는 고위정책협의회를 분기 별로 개최하여 3개시·도간 협력사업의 발굴, 지역현안 및 주요 관심사업 협의, 지역발전에 대한 소통과 유대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계획도 주민의 참여와 이해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언론기관, 대학, 학술단체, 민간단체 등 지역 전문가 그룹과 주민과의 소통과 협력을 적극 전개해 갈 계획이다. 특히 주민 중에서 참신하고 열정에 찬 전국의 충청권 출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충청권 3개시·도의 연계·협력과 상생발전 방안과 충청권 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일체감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공모를 계속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업무추진상황, 3개시·도의 중요한 사항,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동향 등을 담은 「우리충청소식」을 분기별로 발간, 널리 배포하여 충청권 주민들의 충청권 발전정책에 대한 이해와 호응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셋째로는,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인 기획, 조사·연구, 관리·평가에 대한 전문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무 기법의 개발 및 담당자의 업무처리 능력을 대폭 높여나갈 계획이다.

넷째는, 수립된 계획이 시·군의 일선사업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새로운 계획의 수립이나 관리·평가에 필요한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개발사업 현장 방문 및 시·군·구 담당자와의 의견교환기회를 자주 갖도록 할 계획이다.

다섯째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새로이 제기되는 정책 이슈나 충청권 3개시·도의 공동관심 사항에 대하여 민·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세미나, 포럼을 적어도 분기 1회 개최하고 온라인 정책포럼을 설치하여 전국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광역위원, 자문단, 유관기관 대표들이 이러한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후원할 계획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충청권 소재 대학의 학생, 충청권 3개시·도 공무원 교육생들과의 토론 및 의견교환의 장을 마련하여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체제를 설명하고 건의를 받는 쌍방 소통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충청권에는 지역발전 전문가, 지역발전 연구 모임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문가 집단과

의 관계를 증진시키고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친교모임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체제의 발족 배경에서부터 전개과정, 성공전략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였다. 잡지나 방송을 통해서 어떠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은, 표명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표명된 의사 내용을 접한 분들이 더 좋은 의견과 비판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500만 충청인 여러분께서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체제의 성공과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www.ccrdc.go.kr)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성원하고 독려하는 주마가편의 지도편달을 주시기 바란다.

국제 유가의 상승이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 승 희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 론

- 리비아 사태 등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세계경제와 우리나라에 경제비상이 걸렸음
 - 지난 2월 21일 기준 현물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100.36달러로 상승하면서, 2008년 9월 8일(101.83달러) 이후 30개월만에 100달러를 넘어섰음
 - 대표적 안전자산이라 할 수 있는 금도 뉴욕 전자거래에서 온스당 1,400달러를 넘어서며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유가상승으로 인해 원자재 전반에도 큰 파장을 불러 오고 있음
- 유가상승은 석유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음
 - 특히, 무역 의존도 역시 높은 편이어서 고유가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와 함께 수입단가를 상승시켜 수출 감소로 이어져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2. 국제유가의 결정과 유가상승 원인

1) 국제유가의 결정

- 세계 유전이 이처럼 넓게 분포돼 있듯이 이들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종류나 품질도 다양함
 - 유가의 결정은 대체로 거래 유동성이 높고 가격결정과정의 투명한 3가지 원유(WTI : 서부 텍사스 중질유, 브렌트(Brent)유,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삼고 있음

〈표〉 우리나라 원유 수입현황

(단위 : 1,000배럴)

연도	총량	지역별				중동 의존도	수입단가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기타		
2005	843,203	689,356	111,937	34,424	7,487	81.8	48.9
2006	888,794	730,843	110,306	42,814	4,831	82.2	61.1
2007	872,541	704,020	131,273	35,557	1,690	80.7	67.9
2008	864,872	746,458	108,482	9,932	-	86.3	95.8
2009	835,082	705,363	116,379	11,608	1,734	84.5	59.3

자료 : 2010 에너지통계연보, 지식경제부.

- OPEC(석유수출기구,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와 같은 국제 유가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구도 있음
 - 중동 6개국(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 카타르, 이란, 이라크), 아프리카 4개국(나이지리아, 리비아, 알제리, 앙골라), 남아메리카 2개국(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총 12개국으로 이뤄져 있으며 국제 유가 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2) 유가상승의 원인

- 일반적으로 첫째 원인으로 공급량의 부족을 꼽고 있음
 -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며 2008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루 석유 생산량은 8,500만 배럴인 반면 전 세계 석유 수요량은 8,700만 배럴로 하루 약 200만 배럴이 늘 부족한 실정이었음

- 또 하나는 실제로 경기가 좋아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와 달러화 약세 또한 유가상승의 원인임
 - 일반적으로 기름 값은 경기호황일 때 오르고 경기불황일 때 내리는 경향이 있음
 - 그러나 자연적인 수요증가와 달리 한 나라에서 전략비축유(Strategy Petroleum Reserve) 확보에 나설 경우도 유가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음
 - 미국은 약 7억2,650만 배럴을, 일본은 5억8,300만 배럴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6억8,500만 배럴을 확보해 일본을 능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임
- 이밖에도 미래 기름 값에 대한 불안 심리와 투기 자본이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도 하며 산유국들의 사회치안 불안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3. 리비아 사태에 따른 유가상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리비아 석유생산 현황

- 리비아 사태가 세계경제와 원자재가격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리비아가 튀니지와 이집트와 같은 독재국이지만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튀니지나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GDP규모로 볼 때 극빈국 수준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에 처해 있는 반면 리비아의 경우 GDP규모가 1만 2천불을 넘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남다른다는 것임
 - 또한, 리비아는 아프리카 최대의 산유 보유국으로 전세계 원유생산의 1.7%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8위의 석유보유국, 하루 생산기준 세계 18위에 있어 석유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임
- 리비아 사태 진행에 따라 글로벌 주가가 평균 3% 이상 하락하고 있으며 3대 유종이 배럴당 100달러시대를 재현하고 있고 금 등 안전자산의 선호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2) 유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 생활의 기본이 되는 기름을 100%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세계유가의 등락에 국내 물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임
 - 특히 OPEC이나 아랍석유수출국기구인 OAPEC과 같은 산유국들이 기름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거나 기름 생산을 제한한다면 세계 각국은 엄청난 경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음

〈표〉 에너지 원별 구성비

연도	1차 에너지 원별 구성비 (%)						수입 의존도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2005	24.0	44.4	13.3	0.6	16.1	1.7	96.6(80.6)
2006	24.3	43.6	13.7	0.6	15.9	1.9	96.5(80.6)
2007	25.2	44.6	14.7	0.5	13.0	2.0	96.5(83.6)
2008	27.4	41.6	14.8	0.5	13.5	2.2	96.4(83.0)
2009	28.2	42.1	13.9	0.5	13.1	2.2	96.4(83.4)

자료 : 2010 에너지통계연보, 지식경제부.

주 : ()는 원자력 발전을 국내생산에 포함시 수입의존도.

- 실제로 1979년 기름이 나지 않는 개발도상국의 경우 적자폭이 1978년 444억 달러에서 1979년 505억 달러로 확대된 반면 산유국들은 1978년 240억 달러의 흑자에서 1979년 770억 달러로 흑자가 급증하는 결과를 낳았음
 - 우리나라의 경우엔 1973년 1차 오일파동 당시엔 다른 나라에 비해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이후 중화학공업 확대 정책으로 1979년 오일파동 때는 큰 영향을 받아 1979년 6.4%이던 경제성장률이 1980년 -5.7%로 급격히 하락하는 아픔을 겪은 바 있음
- 지난 2007년 하나금융연구소에서 발행된 보고서¹⁾에 의하면 유가가 10% 상승시 국내 GDP는 0.12% 하락하며 경상수지는 약 19억 달러 감소, 물가는 0.2% 상승,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는 0.12%, 0.89%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그러나 100달러를 유지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하회하고 경상수지 적자도 대폭 늘어나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 영업이익률이 1.29%로 수익성 악화가 심화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1) 하나 산업정보, 2007.12.14, 제66호

3) 산업별 유가상승의 영향과 전망

-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국제유가 상승은 우리 경제의 기반인 수출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유가 인상이 전반적인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산업계 전반에 걸친 부담도 불가피하지만 조선을 비롯한 일부 업종은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음

(1) 부정적 영향 산업계

- 해운업계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표적 업종이라 할 수 있음
 - 대형 컨테이너선사가 매년 운송 원료로 300만톤 이상의 벙커C유를 사용하는 등 매출의 20% 정도를 연료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벙커C유는 '11년 들어서만 20%나 급등하고 있음
 - 해운업계는 배의 운항 속도를 낮춰 운송에 투입되는 선박의 숫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유류비 절감에 나설 계획임
- 항공업계 역시 유류비가 총 비용의 30~40%를 차지하고 있어 유가 상승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업종 중 하나임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가가 1달러 오르면 연평균 각각 347억원과 107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망하는 등 유가가 1달러만 상승해도 연평균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항공업계는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대비해 상대적으로 유가가 저렴할 때 항공유를 미리 사두는 '항공유 헤징'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경우 '항공유 헤징' 비율 현행 25%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함께 탑승률과 운항 시간대 등에 따른 음용수의 탑재량 분석, 엔진 효율 증대를 위한 엔진 내부 물 세척과 경량 화물탑재용기 도입 등 다양한 원가 절감 방안도 검토되고 있음
- 유가 상승은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가격 상승 등 제품 원가가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수요 감소 등 화학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특히 정부의 압박으로 당분간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분야임
- 유가 상승이 당장은 매출 및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기름값 비용 부담이 큰 대형차 위주로 판매시 자동차업계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고연비 차량 기술 개발과 연비 경쟁력 있는 소형차 판매를 늘리고 친환경차를 출시하는 등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 전자업계의 경우 앞에 살펴본 다른 산업과 비교시 유가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유가상승이 전반적인 생산원가 인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음
 - 간접적으로 해상운임과 항공료 등 물류비 부담이 커지는 등 다소 부담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철강업계도 유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은 아니지만 유가 상승이 생산원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철강업계도 각종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 중에 있음

(2) 긍정적 영향 산업계

- 유가가 급등하면서 과거 경제성이 낮았던 자원 개발에 붐이 일면서 심해원유시추선인 드릴십 등 해양 부문 발주가 급증하는 등 조선업계는 반사적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0년 한 해 동안 전세계적으로 발주된 드릴십은 6척인 가운데, '11년 들어와 이미 5척이 발주되었음
 - 한편 금융위기 여파로 '09년 9.5% 감소했지만 '10년 다시 10% 이상 증가하는 등 다소 감소한 컨테이너선 발주 물량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음
 -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AP몰러-머스크와 컨테이너 1만 8,000개를 한 번에 나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초대형 컨테이너선 30척을 6조원에 수주하였음

- 최근 리비아 민주화 유혈사태 등 중동지역 정정불안 확산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태가 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을 보이고 있음
 - 국내 업체들이 리비아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10년 기준 19억 6000만달러로 전체 해외 건설 수주(720억달러)의 2.7% 수준으로 미비함
 - 해외수주 중 60% 가량이 집중된 UAE(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3국으로만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지 않는다면 국내 건설업체들의 타격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임
 - 오히려, 도리어 유가 인상이 중동 국가의 설비투자자로 이어지면서 정유 플랜트 수주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도 있음
- 정유업계의 경우 두바이유 가격이 오르면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상승하여 정제이윤이 커져 실적이 좋기 때문에 유가 상승 자체는 호재일 수 있음
 - 단, 기름값 인상시 서민들의 물가부담이 가중되는 바 정부가 기름값 인하 압력이 계속되고 있어 기름값 인상이 쉽지 않아 당분간 국제유가 인상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임

4. 향후 대응

- 정부차원의 에너지 수요 감축과 비축유 확대, 수입선의 다변화 등이 필요함
 - 장기적으로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과 대체에너지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여야 함
- 지방차원에서는 에너지 소비절감과 함께, 저성장·고물가 대비 농정·복지 등 사각지대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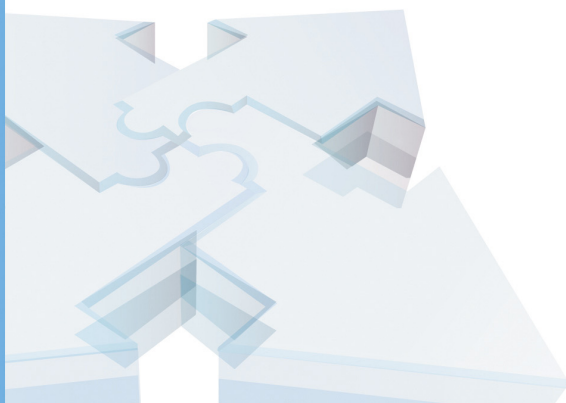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참고문헌

지식경제부 (<http://www.mke.go.kr/>).
 석유정보망(<http://www.petronet.co.kr/>).
 에너지경제연구원(<http://www.keei.re.kr/>).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 산업정보. 제66호. 2007. 12. 16.
 국가지식포털 블로그 <http://blog.naver.com/00knowledge?Redirect=Log&logNo=50103576446>.
 2010에너지 통계연보. 지식경제부.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1월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			소 비	물 가(2월)		대외거래		고 용		
	생산 지수	출하 지수	재고 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50.7	146.6	131.9	145.6	122.5	119.8	44,679	41,764	24,114	23,196	3.8
서울	100.5	104.8	158.9	146.5	121.4	118.8	3,832	9,606	5,161	4,914	4.8
부산	143.3	141.9	152.2	149.5	124.0	120.8	1,211	1,228	1,596	1,534	3.9
대구	131.4	139.8	131.2	118.1	122.2	119.3	466	284	1,203	1,152	4.2
인천	123.3	121.4	109.3	137.1	121.8	119.9	1,948	3,408	1,372	1,297	5.5
광주	179.3	166.8	95.4	147.1	121.9	119.5	877	433	669	647	3.2
대전	127.2	126.9	107.7	131.7	122.9	120.2	331	216	719	692	3.8
울산	124.2	128.2	107.1	139.7	123.8	121.3	6,641	7,061	553	536	3.1
경기	175.9	166.4	174.3	143.3	122.9	120.2	7,259	8,122	5,873	5,649	3.8
강원	132.1	131.8	148.5	162.2	122.1	119.5	147	100	608	590	2.9
충북	160.5	179.4	165.8	141.9	123.5	120.7	1,000	622	700	681	2.7
충남	229.6	205.4	209.7	197.0	123.1	120.6	4,722	2,534	923	899	2.6
전북	149.5	151.2	143.1	152.4	123.6	120.9	996	389	780	756	3.0
전남	122.2	124.4	106.5	169.6	123.2	120.7	3,018	3,326	843	822	2.5
경북	111.2	112.3	147.8	160.5	123.9	120.8	4,293	1,660	1,294	1,250	3.4
경남	149.8	158.4	116.3	167.7	123.4	120.7	7,929	2,755	1,534	1,499	2.3
제주	110.1	105.9	76.8	163.5	122.7	119.5	9	20	287	280	2.4

경제동향(요약)



- 1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2개월 연속 상승 및 선행지수 역시 2개월 연속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음
- 1월중 충남경제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상승세 지속, 수출의 증가세 전환, 기업경기가 기준치를 하회함으로써 기업의 체감경기 악화가 지속됨

전월대비 산업활동과 대외거래의 상승국면, 물가상승은 지속되었으며, 고용사정은 전월에 이어 다소 개선되어가는 추세임

경기

- 1월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5% 상승한 134.8 기록
- 경기순환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 지속
- 3월 BSI는 제조업은 상승, 비제조업은 하락(제조업98, 비제조업 83)
- 비제조업에 비해 제조업 업황전망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
- 재래시장 동향지수는 상승으로 반전하여 재래시장 체감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

산업활동

- 1월 산업생산활동은 전월대비 증가세로 전환,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지속
- 전월대비 생산지수 224.7(+3.7%), 출하지수 198.7(+3.0%), 재고지수 213.8(+13.2%)

소비 및 물가

- 1월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월대비 13.1% 증가, 지수는 197.0 기록
- 2월 자동차등록대수는 842,051대로 전월대비 0.3%(2,538대) 증가
- 2월 중 소비자물가지수 120.6(+0.9%), 생활물가지수 123.1(+1.2%) 모두 전월대비 상승

수출입

- 1월 수출은 전월대비 2.2% 증가(47억22백만달러, 반도체 +49.5%, 석유제품 +49.9%, 컴퓨터 +25.0% 등)
- 수입은 전월대비 5.4% 증가(25억34백만달러, 원유 +44.1%, 석유제품 +8.7% 등)
- 1월 무역수지는 21억88백만달러 흑자

고용

- 1월 경제활동인구 전월대비 4.6% 감소,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1.4%p 감소(56.7%)
- 취업자 4.6% 감소한 89만9천명(사업·개인·공공서비스 +7.1%,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5.7%)
- 1월 실업률 2.6%로 전월과 동일, 실업자 24천명으로 전월대비 7.7% 감소

금융

- 1월 금융기관 수신 전월대비 증가폭 축소, 여신 감소로 전환
- 1월 금융기관 총 수신증감액 +3,127억원, 총 여신증감액 : -1,503억원
- 1월 어음부도율 0.20%로 전월보다 0.07%p 상승(천안·홍성·공주 상승, 논산·서산 감소)
- 1월 부도금액 22억5천만원으로 전월보다 7억2천만원 증가(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두 전월대비 증가)

건설 및 부동산

- 1월 건축허가면적 전월대비 13.7%(415천²), 착공면적 56.7%(256천²) 각각 감소
- 2월 주택매매가격 지수 100.8로 전월대비 0.3%(주요상승지역; 천안 동남구·서북구), 전세가격지수 106.6으로 전월대비 0.7% 각각 상승(주요상승지역; 논산, 천안 서북구)

1. 경기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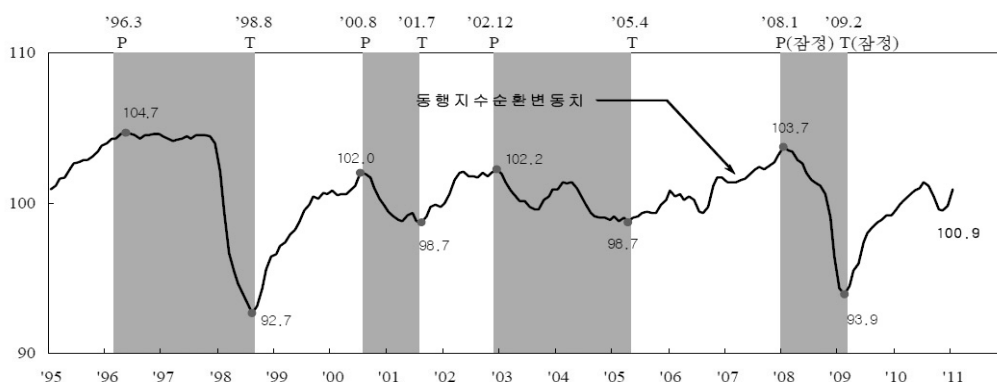
[전국 경기동향]

- 2011. 1월 전국의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등 모든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1.5%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9로 전월보다 1.1p 상승하여 2개월 연속 상승

전국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

구분	'10.6월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11.1월 ^p
○ 동행종합지수	131.4	132.4	132.6	132.2	131.8	132.1	133.1	135.1
· 전월비(%)	0.7	0.8	0.2	-0.3	-0.3	0.2	0.8	1.5
○ 순환변동치	101.0	101.4	101.1	100.4	99.6	99.5	99.8	100.9
· 전월차(p)	0.2	0.4	-0.3	-0.7	-0.8	-0.1	0.3	1.1



·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

- **선행종합지수**는 순상품교역조건, 금융기관유동성 등 3개 지표가 감소하였으나, 재고순환지표, 건설수주액, 구인구직비율 등 6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7%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3.0%로 전월보다 0.2%p 상승

전국 선행종합지수

구분	'10.6월	7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11.1월 ^p
○ 선행종합지수	127.7	128.4	128.8	128.8	128.4	128.7	129.3	130.2
· 전월비(%)	0.3	0.5	0.3	0.0	-0.3	0.2	0.5	0.7
○ 전년동월비	6.8	6.2	5.4	4.5	3.3	2.8	2.8	3.0
· 전월차(%p)	-0.9	-0.6	-0.8	-0.9	-1.2	-0.5	0.0	0.2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2011. 1월중 충남의 **동행종합지수**는 대형소매점판매지수의 큰 폭 상승과 함께 산업생산지수, 수출액, 수입액이 증가세로 반전되며 **134.8**로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 지속**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1.1%p** 증가한 **101.8**을 나타내며 상승세 지속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구 분	'10.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p	12월 ^p	'11.1월 ^p
○ 동행종합지수	130.4	131.2	132.1	131.9	131.9	131.9	132.8	134.8
· 전월비(%)	0.7	0.6	0.4	0.2	-0.1	-0.0	0.5	1.5
○ 순환 변동치	101.1	101.4	101.4	101.2	100.7	100.3	100.6	101.8
· 전월차(%p)	0.3	0.2	0.0	-0.2	-0.5	-0.4	0.3	1.1

주) p는 잠정치임.

- 1월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는 대형소매점판매지수의 큰 폭 상승과 지난달 감소를 보였던 구성지표들이 상승으로 반전
 - 비농가취업자수(0.7%), 산업생산지수(0.6%), 대형소매점판매지수(14.1%), 전력사용량(1.6%), 수출액(1.0%), 수입액(2.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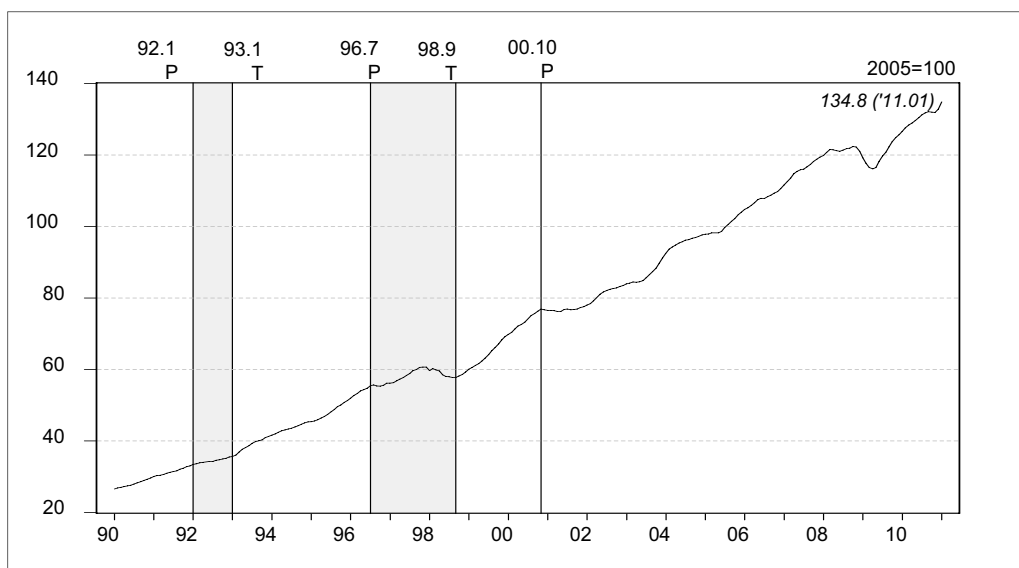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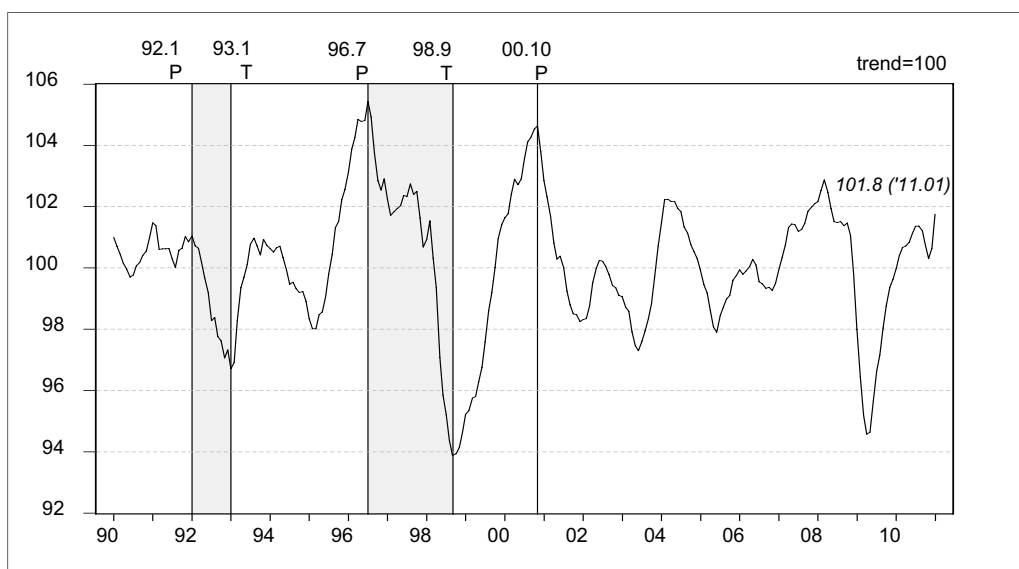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0.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p	12월 ^p	'11.1월 ^p
비농가취업자수	0.2	0.2	0.0	-0.4	-0.9	-0.3	0.2	0.7
산업생산지수	1.2	0.8	1.5	0.9	1.4	0.8	-0.1	0.6
대형소매점판매지수	0.0	1.9	-0.4	-0.2	-2.5	-2.6	10.5	14.8
전력사용량	1.3	0.7	1.0	1.0	1.0	0.8	1.2	1.6
수출액(실질)	1.9	2.3	1.5	0.9	0.3	-0.5	-0.2	1.0
수입액(실질)	2.8	1.9	0.7	0.9	0.4	0.7	-1.7	1.2

주) 증감률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2011. 3월 대전·충남지역의 제조업 업황 BSI는 98로 전월(94)보다 4p 상승, 자금사정전망 BSI는 95로 전월(99)보다 4p 하락
- 2011. 3월 비제조업 업황 BSI는 83으로 전월(85)보다 2p 하락, 자금사정전망 BSI는 90로 전월(88)보다 2p 상승
- 대전·충남지역 제조업 및 비제조업의 2월중 업황 및 자금사정은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이 부진하였으며, 3월 제조업의 업황은 다소 개선, 비제조업은 부진 및 자금사정에 있어 제조업은 다소 둔화되나, 비제조업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조사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변동폭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기업경기	98	99	100	95	95	94	98(96)	+4(+5)
매출	113	114	112	108	112	116	113	-3
생산	112	110	114	110	107	111	109	-2
신규수주	110	105	106	100	105	111	111	0
채산성	93	92	92	88	88	89	84	-5
제품재고	98	102	102	101	99	98	96	-2
인력사정	88	84	86	91	92	89	91	+2
자금사정	95	99	92	97	101	99	95	-4
외부자금수요	114	120	117	118	119	115	115	0
자금조달사정	95	100	94	96	100	99	97	-2

주: ()내는 전국 기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변동폭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기업경기	78	86	85	95	84	85	83(85)	-2(+1)
매출	91	100	95	95	91	85	85(100)	0(+8)
채산성	86	88	90	94	89	83	89(90)	+6(+1)
인력사정	97	93	93	91	86	93	85(91)	-8(-2)
자금사정	89	94	87	91	85	88	90	+2
외부자금수요	115	116	114	109	116	117	121	+4
자금조달사정	91	95	87	93	85	86	93	+7

주: ()내는 전국 기준.

$$BSI^*(\text{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이면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시장경기 동향]

- 2011. 2월 충남지역 재래시장 업황실적은 53.6으로 전월대비 36.4% 상승, 매출(+32.2%), 자금사정(+24.4%) 모두 전월대비 상승
- 2011. 3월 충남지역 재래시장의 업황전망(115.5), 매출전망(109.5), 자금사정전망(102.4) 모두 전월대비 큰 폭 상승
- 충남의 재래시장 전망은 2010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기준지수 100을 하회하다 상승으로 반전하여, 재래시장 체감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됨

전국 및 충남의 재래시장 실적

(기준지수=100)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 감 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업황	전국	58.8	95.0	74.6	82.0	59.6	50.0	47.5	-5.0
	충남	77.4	97.6	66.7	94.0	58.3	39.3	53.6	36.4
매출	전국	56.7	97.2	74.9	81.5	59.5	53.9	47.6	-11.7
	충남	75.0	103.6	67.9	96.4	57.1	36.9	48.8	32.2
자금 사정	전국	62.5	81.0	74.6	75.8	62.7	56.6	55.1	-2.7
	충남	73.8	86.9	69.0	85.7	57.1	53.6	66.7	24.4

전국 및 충남의 재래시장 전망

(기준지수=100)

구분		2010년				2011년			전월대비 증 감 률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업황	전국	120.8	108.5	105.4	86.5	84.9	77.8	109.6	40.9
	충남	125.6	114.3	98.8	73.8	79.3	81.0	115.5	42.6
매출	전국	122.4	109.6	106.0	85.9	83.9	75.5	108.6	43.8
	충남	125.6	121.3	100.0	67.5	86.3	76.2	109.5	43.7
자금 사정	전국	101.1	97.9	95.0	82.4	80.9	80.5	100.5	24.8
	충남	102.4	103.8	95.2	80.8	79.8	89.3	102.4	14.7

자료 : 시장경기동향조사 보고,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2. 산업활동

[산업생산 동향]

- 2011. 1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8.3% 증가, 전월대비 3.7% 증가
 - 비금속광물제품,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 및 장비, 의약품, 자동차, 영상·음향 및 통신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1월	8월	9월	10월	11월 ^P	12월 ^P	1월 ^P
산업생산지수	207.5	227.7	223.6	242.7	236.0	227.3	224.7
전년동월비	72.3	16.4	3.4	17.6	15.0	7.3	8.3
전월비	2.3	4.4	-0.5	-0.2	-1.3	-2.4	3.7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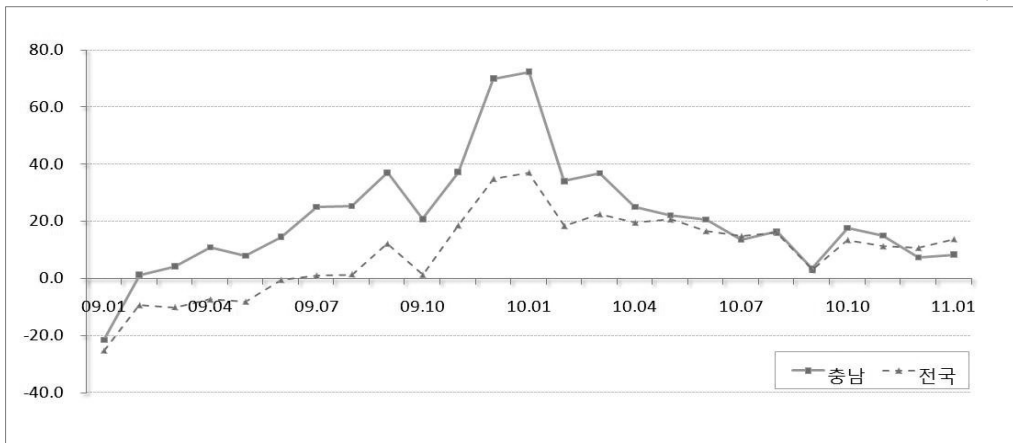
- 기계및장비(+61.8) : 평면디스플레이제조장비, 열처리로 및 전기로, 반도체공정장비 등
- 의약품(+67.4) : 의약품
- 자동차(+10.9) : 대형승용차, 차체부품, 제동장치, 기관용부품 등
- 영상음향및통신(+1.4) : 노트북용LCD, TV용LCD, 예폭시인쇄회로기관, 모스조립 등

[감소업종]

- 비금속광물제품(-3.3) : 액정모니터유리, 콘크리트전주 및 파일, 콘크리트벽면 등
- 전기장비(-5.0) : 배전반, 전력선, 통신선, 변압기 등

전국 및 충남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출하 동향]

- 2011. 1월 충남의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6.7%, 전월대비 3.0% 각각 증가
 - 영상·음향 및 통신, 비금속광물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 및 장비, 제1차금속, 의약품,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1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1월 ^P
출하지수	186.3	208.8	208.6	221.4	218.7	204.4	198.7
전년동월비	65.0	19.8	6.3	17.2	16.3	4.9	6.7
전월비	1.4	3.3	2.1	-1.9	-0.6	-4.3	3.0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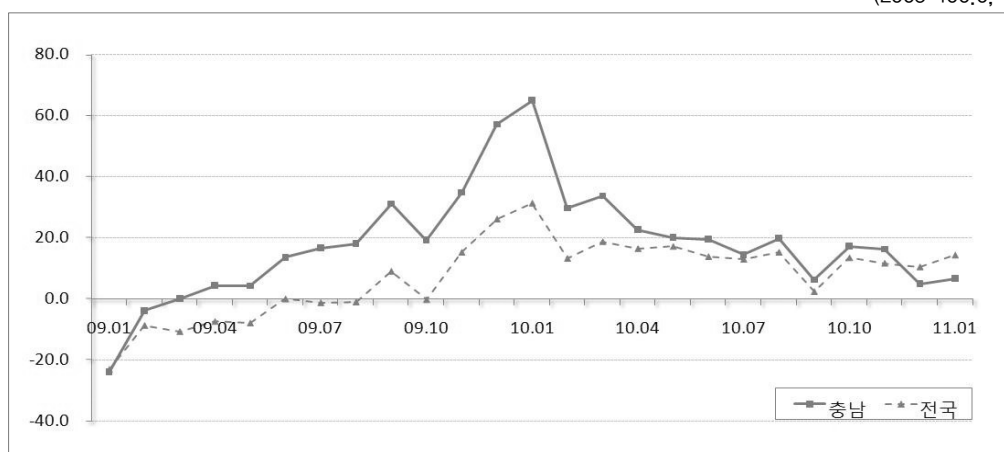
- 기계및장비(+83.9) : 평면디스플레이제조장비, 열처리로 및 전기로, 반도체공정장비 등
- 제1차금속(+21.4) : 열연대강, 빌렛, 주물, 강관 등
- 의약품(+57.1) : 의약품
- 고무및플라스틱(+26.0) : 플라스틱자동차부품, 플라스틱필름, 플라스틱포장용기 등

[감소업종]

- 영상음향및통신(-5.8) : TV용LCD, 노트북용LCD, 기타모스비메모리, 백라이트유닛 등
- 비금속광물제품(-6.1) : 액정모니터유리, 타일, 흙관, 콘크리트벽면 등

전국 및 충남 출하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재고 동향]

- 2011. 1월 충남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71.5%, 전월대비 13.2% 각각 증가
 - 금속가공제품, 의복 및 모피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제1차금속, 전기장비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10년						2011년
	1월	8월	9월	10월 ^P	11월 ^P	12월 ^P	1월 ^P
재고지수	124.7	170.3	155.8	167.5	164.5	182.5	213.8
전년동월비	-8.8	25.8	22.4	35.4	37.1	52.3	71.5
전월비	0.6	-1.4	-6.3	6.7	-0.5	9.9	13.2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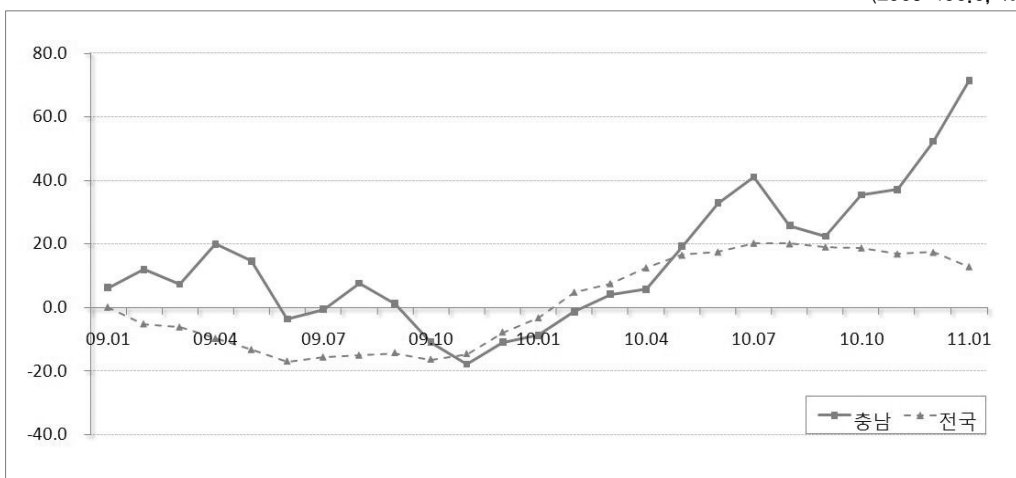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224.3) : TV용LCD, 노트북용LCD, 모니터용LCD, 에폭시인쇄회로기판 등
- 자동차(+113.5) : 중형승용차, 대형승용차, 차체부품, 기관용부품 등
- 제1차금속(+44.3) : 열연대강, 아연도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등
- 전기장비(+46.6) : 소형2차전지셀, 소형전동기, 비데, 김치냉장고 등

[감소업종]

- 금속가공제품(-4.7) : 나사제품, 금속패널제품, 잠관, 철망
- 의복및모피(-10.2) : 스타킹

전국 및 충남 재고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3. 소비 · 물가

[소비]

- 2011. 1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135,449백만원으로 전월대비 8.6%, 전년동월대비 52.4% 각각 증가, 지수는 197.0 기록
- 내구재,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의 증가로 인해 대형마트 경상판매액은 전월대비 21.1%, 전년동월대비 38.0% 각각 증가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5.9) : 통신기기(+18.5), 컴퓨터(+18.1), 가구(+9.1), 가전제품(+3.5)
- 준내구재(-4.4) : 운동, 오락(-26.6), 신발(-20.1)
- 비내구재(+34.0) : 음식료품(+38.8), 화장품(+37.7)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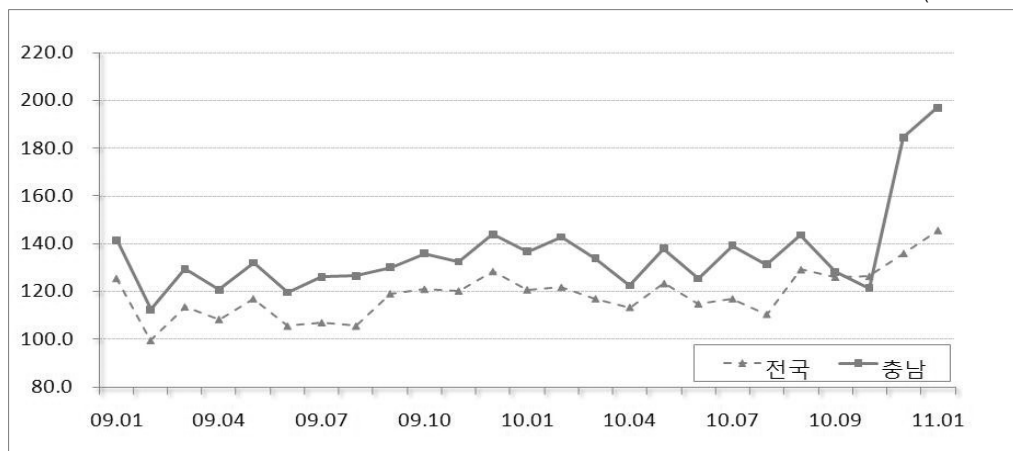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1월	10월	11월 ^o	12월 ^o	1월 ^o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4,720,969	5,123,237	5,075,373	5,517,940	5,990,248	26.9	8.6
충 남	151,966	148,625	142,477	196,647	222,482	46.4	13.1
대형소매점	88,900	87,095	81,277	124,757	135,449	52.4	8.6
대형마트	63,066	61,530	61,200	71,890	87,033	38.0	21.1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 지수

(2005=100)



주 : 대형소매점 불변지수

[자동차 등록]

- 2011. 2월 충남의 자동차등록대수는 842,051대로 전월대비 0.3%(2,538대), 전년 동월대비 5.0%(39,876대) 각각 증가
 - 차종별로는 전월대비 승합차(-0.1%)는 감소한 반면 승용차(+0.4%), 화물차(+0.1%), 특수화물차(+0.5%) 등록대수는 증가
 - 전년동월대비 승합차(-0.4%)는 감소한 반면 승용차(+6.4%), 화물차(+2.3%), 특수화물차(+6.0%) 등록대수는 증가

충남지역 자동차 등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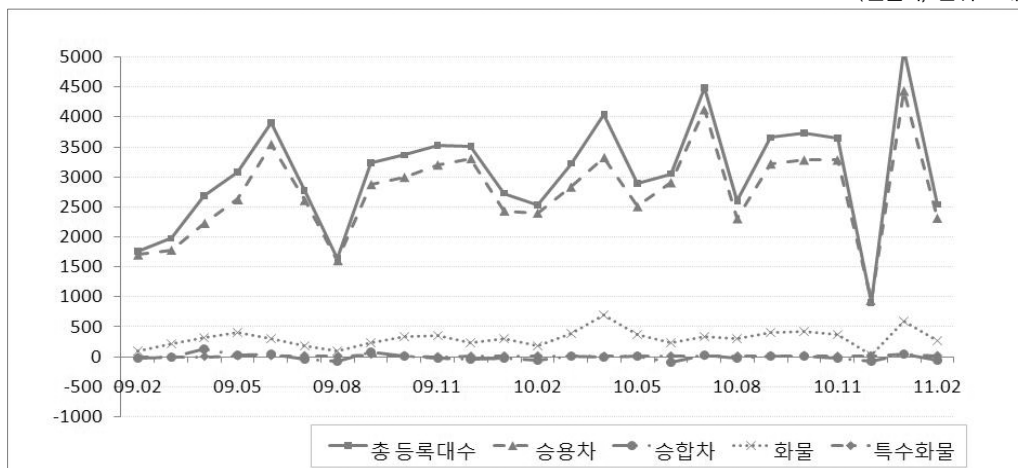
(단위 : 대, %)

구분		2010년			2011년		증 감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년동월차	전월차
합계		802,175	833,491	834,391	839,513	842,051	39,876	2,538
차 종 별	승용	558,906	586,724	587,668	592,102	594,418	35,512	2,316
	승합	50,573	50,473	50,401	50,447	50,393	-180	-54
	화물	190,154	193,666	193,685	194,284	194,546	4,392	262
	특수화물	2,542	2,628	2,643	2,680	2,694	152	14
용 도 별	자가용	765,944	795,305	796,538	801,147	803,473	37,529	2,326
	관용	3,722	3,851	3,851	3,891	3,929	207	38
	영업용	32,509	34,335	34,002	34,475	34,649	2,140	174

자료 : 시군별 자동차등록현황, 충청남도

충남지역 자동차 등록 추이

(전월차, 단위 : 대)



[물가]

- 2011. 2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0.6으로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4.8% 각각 상승
 - 농축산물(+19.8%), 공업제품(+5.1%), 집세(+1.9%), 공공서비스(+1.0%), 개인서비스(+3.1%) 등 주요 품목의 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23.1로 전월대비 1.2%, 전년동월대비 5.2% 각각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43.0으로 전월대비 1.5%, 전년동월대비 29.4% 각각 상승
 - 신선어개, 신선채소는 전년동월대비 11.1%, 29.8% 각각 상승, 신선과실은 35.3% 상승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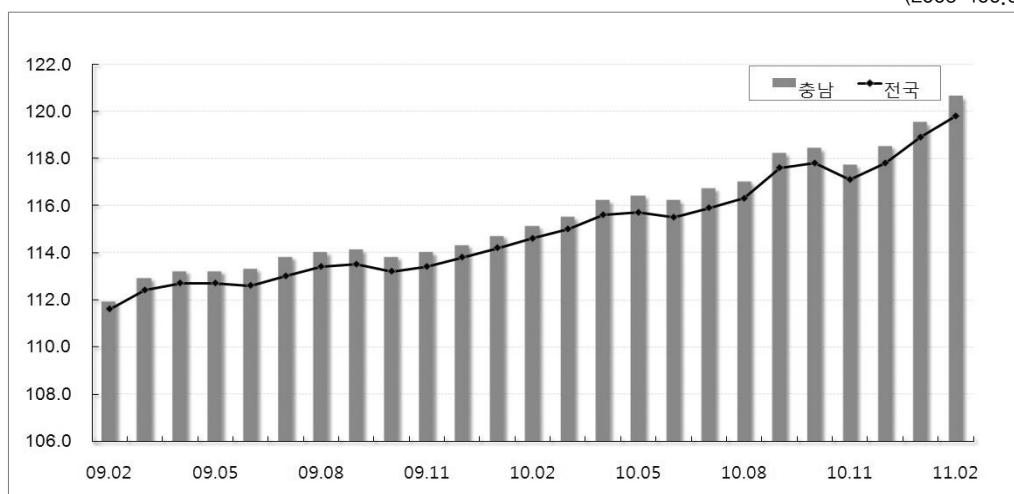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14.6	117.1	117.8	118.9	119.8	4.5	0.8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15.1	117.7	118.5	119.5	120.6	4.8	0.9
상품 상·하	상 품		115.8	120.3	122.1	123.6	125.2	8.1	1.3
	서비스		114.6	115.8	115.9	116.5	117.4	2.4	0.8
생활물가지수			117.0	119.3	120.3	121.6	123.1	5.2	1.2
신선식품지수			116.3	136.0	140.2	140.9	143.0	29.4	1.5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0)



4. 수출입

[수출입]

- 2011. 1월 충남의 수출은 평판디스플레이의 증가세 전환 및 석유제품 등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29.0%, 전월대비 2.2% 각각 증가
 - 전년동월대비 29.0% 증가(47억22백만달러)하여 증가세 지속(+18.1%→+29.0%)
 - 반도체(+49.5%), 석유제품(+49.9%) 등이 증가세 지속에 기인
- 2011. 1월 충남의 수입은 원유, 석탄, 석유제품 등의 증가세 지속으로 전년동월대비 39.8%, 전월대비 5.4% 각각 증가
 - 원유(+44.1%), 석유제품(+8.7%) 등의 증가로 인해 전월대비 증가세 지속(+20.8%→+39.8%)

전국 및 충남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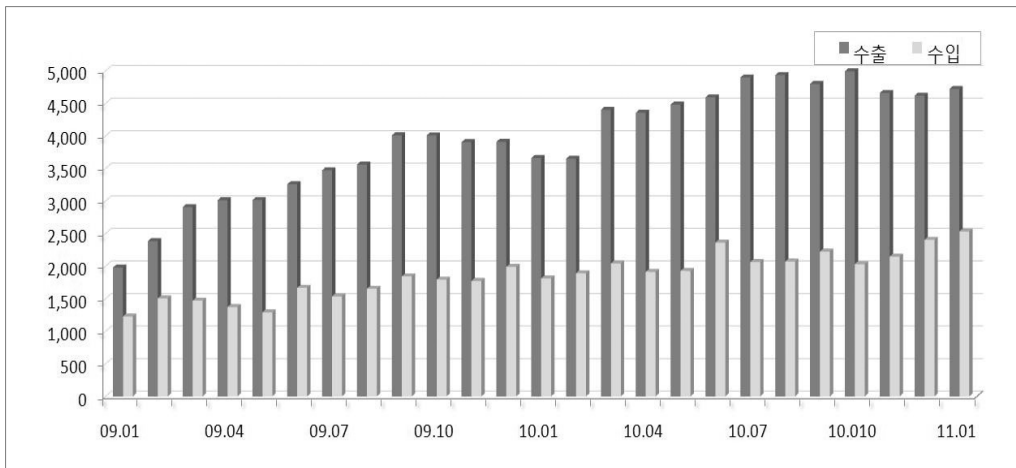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출	30,735	43,340	41,261	44,145	44,679	45.4	1.2
	수입	31,536	37,001	38,669	40,057	41,764	32.4	4.3
	무역수지	-801	6,339	2,592	4,088	2,915	-	-
충남	수출	3,661	4,994	4,660	4,619	4,722	29.0	2.2
	수입	1,812	2,031	2,147	2,405	2,534	39.8	5.4
	무역수지	1,849	2,963	2,513	2,214	2,188	-	-

자료 :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1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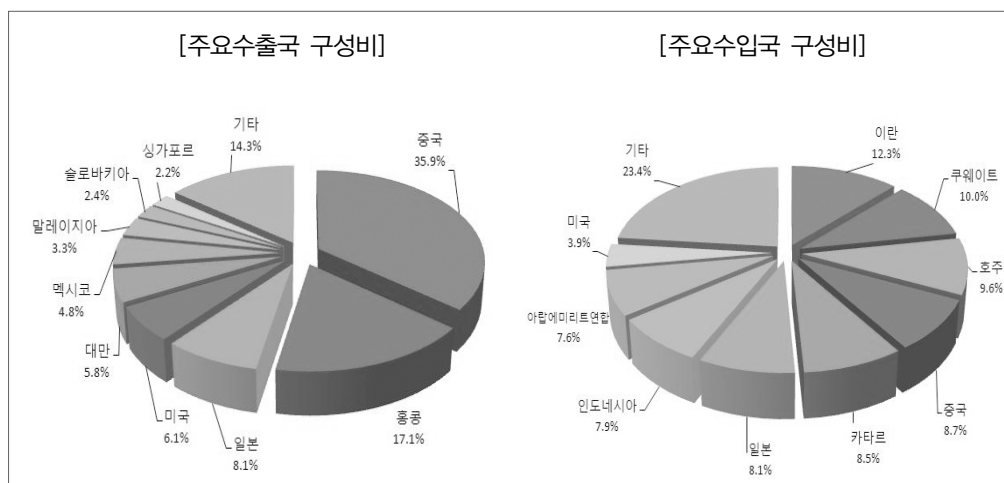
구분	품목명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4,722	29.0	2.2	100.0
1	반도체	1,461	49.5	4.3	30.9
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270	2.5	-0.4	26.9
3	석유제품	297	49.9	34.4	6.3
4	컴퓨터	201	25.0	1082.4	4.3
5	합성수지	169	15.1	-2.9	3.6

1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입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2,534	39.8	5.4	100.0
1	원유	1,036	44.1	4.0	40.9
2	석탄	397	58.2	99.5	15.7
3	석유제품	283	8.7	-14.2	11.2
4	원동기및펌프	57	259.1	62.9	2.2
5	정밀화학원료	49	75.4	8.9	1.9

1월 국별 수출입 현황



5. 고 용

[경제활동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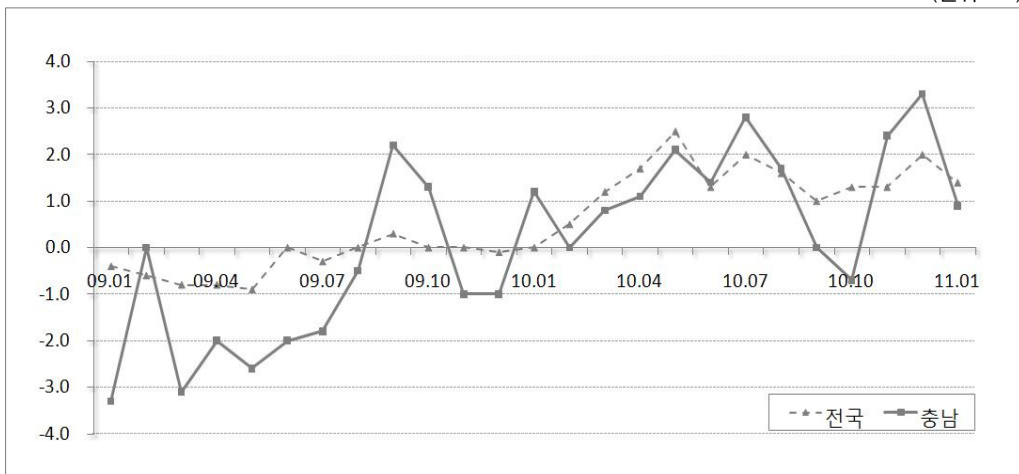
- 2011. 1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0.9% 감소
 - 15세이상 인구는 1,627천명으로 전년동월(1,603천명)보다 24천명(+1.5%)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923천명으로 전년동월(932천명)보다 9천명(-0.9%)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56.7%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
 -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15세이상인구)×100

[취업자]

- 2011. 1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89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전월대비 4.6% 감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7.1%), 전기·운수·통신·금융업(+15.7%)부문은 증가한 반면, 건설업(-8.3%), 도소매·음식숙박업(-9.0%) 부문의 취업자는 감소하였음

충남 및 전국의 월별 취업자 전년동월비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2011. 1월 충남의 실업자는 24천명으로 전년동월(41천명)대비 17천명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4.4%)대비 1.8%p 감소한 2.6%

6. 금 융

[수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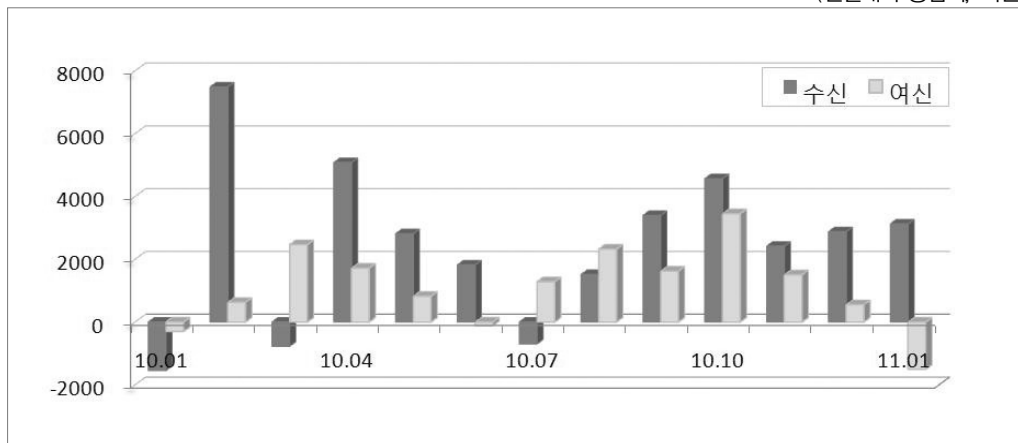
- 2011. 1월말 충남의 수신잔액은 예금은행 14조 9,945억원, 비은행기관 28조 5,728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수신잔액은 43조 5,673억원 기록
- 예금은행 : 거치·적립식예금의 감소폭이 크게 축소된 데다 수시입출식 예금의 증가세 지속으로 증가세로 전환 [12월 -288억원 → 1월 +1,338억원]
- 비은행기관 : 아산탕정지구 기업점포의 상여금 유치 등으로 새마을금고 수신 증가 및 영농자금 상환용 예금 인출로 상호금융의 증가폭 축소 [12월 +3,165억원 → 1월 +1,789억원]
- 총 수신증감액 : 12월 +2,877억원 → 1월 +3,127억원

[여신]

- 2011. 1월말 충남의 여신잔액은 예금은행 22조 8,042억원, 비은행기관 15조 3,447억원으로 충남지역 금융기관 총 여신잔액은 38조 1,489억원 기록
- 예금은행 : 기업대출은 일시상환된 대출의 재취급으로 증가,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이 상환되면서 감소로 전환 [12월 -1,123억원 → 1월 -703억원]
- 비은행기관 : 상호금융,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상환 증가 및 아산탕정지구의 기업점포 신용대출 상환으로 여신 감소로 전환 [12월 +1,675억원 → 1월 -800억원]
- 총 여신증감액 : 12월 +551억원 → 1월 -1,503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어음부도]

- 2011. 1월 충남의 부도율은 0.20%로, 전월대비 0.07%p 상승
 - 지역별로는 천안 0.16%, 홍성 0.73%, 논산 0.14%, 공주 0.11%, 서산 0.00% 기록

충남지역 어음부도율

(단위 : %, %p)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연중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월대비 등락	전년동월대비 등락
충 남	0.17	0.09	0.07	0.22	0.13	0.20	0.07	0.11
천 안	0.19	0.12	0.02	0.29	0.12	0.16	0.04	0.04
홍 성	0.33	0.09	0.01	0.25	0.27	0.73	0.46	0.64
논 산	0.20	0.05	0.74	0.25	0.23	0.14	-0.09	0.09
공 주	0.02	0.00	0.02	0.08	0.01	0.11	0.10	0.11
서 산	0.05	0.04	0.04	0.08	0.05	0.00	-0.05	-0.04

자료 :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 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 1월 중 부도금액은 22억 5천만원으로 전월보다 7억 2천만원 증가
 - 제조업 : 12월 8억원 → 2011. 1월 9억 4천만원
 - 건설업 : 12월 2억원 → 2011. 1월 4억 2천만원
 - 서비스업 : 12월 4억 1천만원 → 2011. 1월 8억 6천만원
- 1월 중 부도업체수는 3개로 전월(2개)보다 1개 증가하였으며, 제조업이 1개 증가

업종별 부도금액 및 부도업체수

(단위 : 억원, 개)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부 도 금 액	제조업	7.4	1.2	6.5	8.0	9.4	2.0	1.4
	건설업	0.3	0.0	2.3	2.0	4.2	3.9	2.2
	서비스업	2.4	3.5	4.1	4.1	8.6	6.2	4.5
	기타	1.1	1.9	12.5	1.2	0.3	-0.8	-0.9
	합계	11.2	6.6	25.4	15.3	22.5	11.3	7.2
부 도 업 체 수	제조업	0	0	1	0	1	1	1
	건설업	0	0	1	1	1	1	0
	서비스업	0	0	1	1	1	1	0
	기타	0	0	0	0	0	0	0
	합계	0	0	3	2	3	3	1

[신설법인수]

- 2011. 1월 충남의 신설법인수는 186개로 전월(183개)보다 3개 증가

7. 건설 ·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2011. 1월 충남의 건축허가면적은 415천㎡로 전월대비 13.7% 감소,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1월 허가면적 구성비 : 공업용(30.8%), 주거용(18.3%), 상업용(15.4%)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399,707	400,493	812,945	480,231	414,632	3.7	-13.7
주거용	68,921	89,363	331,957	95,017	76,077	10.4	-19.9
상업용	57,729	73,484	118,892	80,744	63,723	10.4	-21.1
농수산용	39,356	50,250	92,363	124,076	51,274	30.3	-58.7
공업용	144,748	105,124	125,310	94,982	127,853	-11.7	34.6
기 타	88,953	82,272	144,423	85,412	95,705	7.6	12.1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

- 2011. 1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256천㎡로 전월대비 2.1%, 전년동월대비 56.7% 각각 감소
 - 1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31.3%), 농수산용(18.0%), 주거용(17.3%)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

구분	2010년				2011년	증감률	
	1월	10월	11월	12월	1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323,545	464,780	666,098	591,027	255,721	-2.1	-56.7
주거용	115,980	114,272	187,730	205,033	44,142	-61.9	-78.5
상업용	44,876	68,008	137,038	104,361	30,223	-32.7	-71.0
농수산용	18,572	65,632	107,409	89,869	46,027	147.8	-48.8
공업용	71,387	161,818	150,815	122,813	79,946	12.0	-34.9
기 타	72,730	55,050	83,106	36,995	55,383	-23.9	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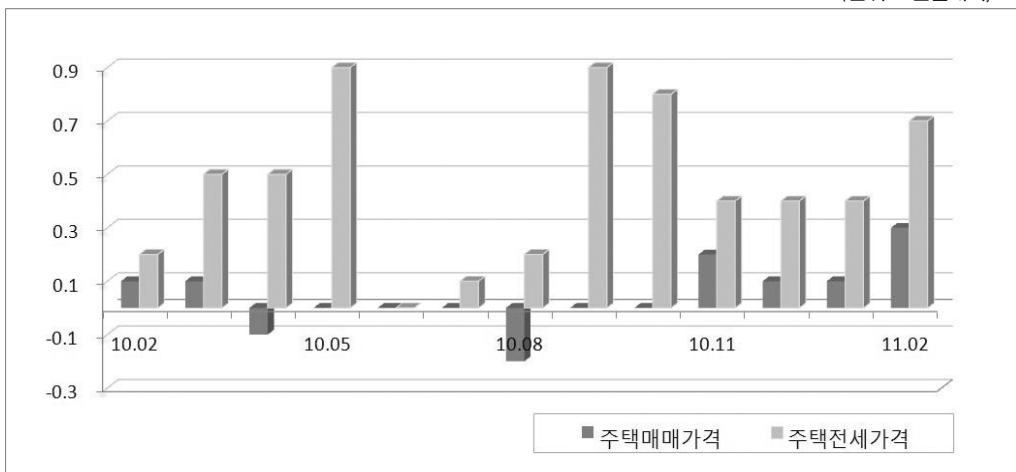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2011. 2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7%, 전월대비 0.3% 각각 상승
 - 주택매매 물량 부족 및 매수심리가 호전되면서 전월대비 4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감
 - 천안 동남구(+0.6%) 및 서북구(+0.3%) 지역이 주요 상승지역이며, 단독과 연립주택은 약 4개월 동안 보합세를 이어간 반면, 아파트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가격 상승
- 2011. 2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은 8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전월대비 증가(+0.7%)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논산(+1.3%), 천안 서북구(+0.9%) 지역이며, 아파트 및 단독·연립주택 모두 상승세 지속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률

(단위 : 전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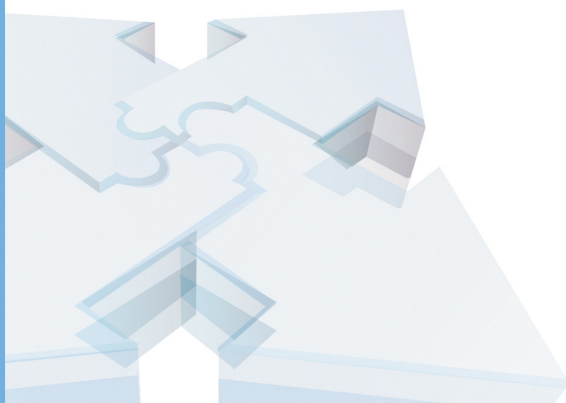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1.2.17] 연기 명학산업단지와 서산 테크노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

- 연기 명학산업단지는 연기군 동면 명학리, 내판리, 응암리 일원 87만㎡(26만평)에 연기군수가 약 2,0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전자 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기계 장비 등 8개 업종 유치
- 서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는 서산시 성연면 일원 199만㎡(60만평)에 당초 학교 용지를 동주택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개발계획 조건부 승인

['11.2.18] 충남형 「살기 좋은 마을」 사업 아이디어 발굴 워크숍

-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김종민 정무부지사 주재로 관련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석하여 충남형 「살기 좋은 마을」 사업 기획위원회 구성과 향후운영 방안 모색
- 충남 마을공동체현황과 정책과제(공주대 정남수), 충남농어촌개발사업 실태 및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과제(충발연 조영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흥동지역활력소 성공사례(홍성 문당권역 주형로 위원장) 등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진행
- 주거·환경·경제·일자리·복지·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사업 모델 창출

['11.2.22] 대전·충남지역 노사정 자문단 회의

-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대전·충남 노사정 자문단 위원 11명이 참석하여 복수노조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노사·노노간 갈등 예방 및 제도 정착 등 협의

['11.2.23] 제97차 충남경제포럼 조찬세미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온양관광호텔에서 기업인, 주요 기관·단체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조찬 및 2011년 국내외 10대 트렌드 등 논의

['11.2.23~3.4] 충남 동남아 무역사절단, 955만\$ 수출계약

- 베트남(호치민)·태국(방콕)·필리핀(마닐라)에서 10개사가 참가하여 3,065만 6천\$의 수출상담과 955만 2천\$의 수출계약 진행

['11.2.25] 엘피온(주), 공주 탄천 산업단지에 3,300억원 투자

- 충청남도, 공주시, 충남개발공사, 엘피온(주)(대표이사 고성규)가 공주 탄천 일반산업단지 내 13만2천㎡(약4만평)에 태양전지 핵심 소재인 Polysilicon 생산용 부품 소재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MOU) 체결
- 2017년까지 3천300억원 투자하여 향후 7년간 4,6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 4,000여 명의 고용 창출, 1,900여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 기대

['11.2.25]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담당자 실무교육

- 충남도 주관으로 충남지방공무원교육원(대강당)에서 도·시군 공공구매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설명

['11.2.28] 충남형 사회적기업 실무지원위원회

- 충남도 주관으로 충남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실무지원위원회 위원 10명(위원장 도 경제통상실장)이 참석하여 사회적 기업 선정 심사기준 등 협의

['11.3.2] 충남, 430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

- 충남 도내 430개교 13만 5천여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3월 2일부터 실시
- 충남도와 16개 시·군 및 충청남도교육청이 632억원(道 126, 시군 190, 교육청 316)을 지원(학생 1인당 1일 평균 급식단가 2,610원)
- 2012년에는 면지역 중학생을, 2013년에는 읍지역 중학생을, 2014년에는 동지역 중학생을 추가로 포함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2014년부터는 도내 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

['11.3.3] 충남문화산업 업무활성화 및 소통을 위한 워크숍

- 충남도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원장 설기환) 주관으로 천안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 도 및 16개 시군 공무원과 유관기관의 문화산업 리더 등 100여명이 참석
- 충남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육성방안 등에 대한 특강, 2011년도 주요 업무계획 설명 등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전문가와 자유토론 진행

['11.3.4~3.12] 충남 중동-유럽 무역사절단, 149만\$ 현지계약

- 사우디아라비아 젓다, 요르단 암만, 스위스 취리히 지역을 대상으로 7개사가 참가하여 6,500만\$ 수출상담과 149만\$ 현지계약 체결
- (주)태성화학, (주)테크리아 제과업체, 스킨렉스(초음파비만치료기) 등

['11.3.9] 충남 사회적 기업 협의회 발기인 대회

- 사회적 기업인 (주)두레마을(연기군 조치원읍 소재)에서 도내 사회적 기업 대표 9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안)과 임원진 선출(안) 마련
- 회원 자격은 충남 도내에 소재하고 고용노동부 및 충청남도에서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과 충남형 (예비)사회적 기업이며,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 등 수행

['11.3.11] 유관기관 합동 맞춤형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 충남교통연수원에서 도내 중소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 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코트라, 한국발명진흥회, 충청남도경제진흥원 및 테크노파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13개 기관의 자금, 인력, 판로, 수출 등 기업지원시책 설명과 『기업애로 상담실』 운영

['11.3.14] 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 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 출범

- 충청남도청에서 충남·북과 대전지역 4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대선공약 이행 범충청권비상대책위원회(상임 공동대표 이상운 씨 등 6명) 출범
- 3월 16일 대전역 광장에서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3월 23일 충청출신 국회의원, 향우회원 등 2,000여명이 참석하여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궐기대회 개최

['11.3.15] 국제 미래영상산업 컨퍼런스

- 지식경제부와 충청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 주최(충남TP 영상미디어센터와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 주관)으로 충남테크노파크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영화감독, 기업, 충청권 3D산업발전위원회 위원 150명이 참석하여 '3D산업 기술, 콘텐츠 그리고 색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3D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등 토론
- 충청권 3D산업발전위원회 출범(2.17)
- (재)충남테크노파크와 (사)한국영화촬영감독협회간 영상산업 관련 기술교류, 프로젝트 공동추진, 인프라 활용 등을 포함한 교류협력 협약(2.25)

['11.3.21]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 보고회

- 도청 대회의실에서 道, 시·군 물가 및 에너지관련 관계관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과 지방서비스요금 안정관리를 위한 추진상황 최종 점검
- 「상반기 동결」, 물가합동 지도점검반 편성운영,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원가분석을 위한 특별 가격조사, 소비자단체의 물가 감시·견제기능 강화, 부당 요금인상업소 가시적인 행정처분,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 등 추진

['11.3.23] 신성장동력 3대 프로젝트 관련 전문가 초청 워크숍

- 충청남도(주관 충남테크노파크) 주최로 충남테크노파크 대강당에서 중앙부처 및 道와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플렉시블 전자소자산업, 녹색그린사업 및 nD융합사업 등 신성장동력 3대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분과별 토론

['11.3.23] 제98차 충남경제포럼 조찬세미나

- 충남북부상공회의소 주관으로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천안)에서 경제포럼회원, 주요기관·단체장, 회원업체 임원 등 130여명이 참석하여 조찬 및 실질 고급리 시대의 도래와 기업의 대응 등 논의

['11.3.24] 「충청남도 동반성장 협의회」 출범

- 도청 대회의실에서 대기업, 협력중소기업, 공익대표 등 협의회 위원 19명(위원장 도지사)이 참석하여 道 동반성장 추진계획 설명 및 운영규정안 심의 의결

['11.3.25] 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 충남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의원, 유관기관, 대학, 기업, 시민단체 등 위원 15명이 참석하여 사회적 기업 선정

['11.3.26] 지구촌 불끄기 행사

-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전세계(130국가 4,700여 도시)가 소등행사 실시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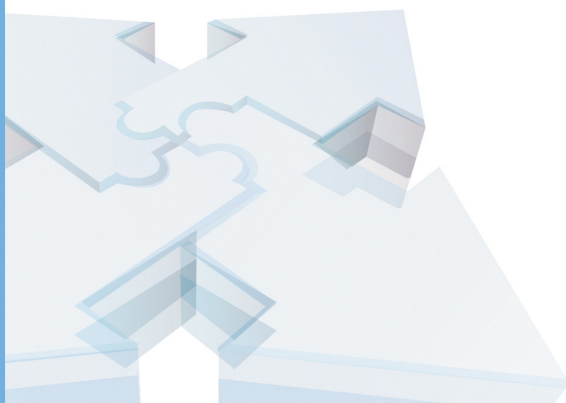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 <http://www.seri.org>
 - 2011년 글로벌 기업의 경영 이슈
 - 중소기업의 새로운 활로, 네트워크형 협력
 - 인도시장의 부상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 한국 소프트웨어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 조직 내 소통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현대경제연구소(VIP 리포트) : <http://hri.co.kr>
 - 한국 부품소재산업 경쟁력의 허와 실
 - 신한류, 지속 가능한가?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실태아 개선을 위한 시사점
 - 녹색건설의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방향 모색
- LG경제연구소(ERI 리포트) : <http://www.lgeri.com>
 - 중국 서부 대개발(인프라 깔기 10년, 이제 거점 중심으로 본격 개발)
 - 일본 기업의 불륜존 전략(신흥국에서 키우는 글로벌 리더십 회복의 꿈)
 - 개방과 소통이 만드는 서비스 사업의 혁신
 - 중동 민주화 도미노의 경제적 파장
 - 일본 대지진, 경제적 충격파는 어디까지?
- 한국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 u-health 서비스의 소비자 인식 조사와 활성화 방안
-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if.re.kr>
 - 금융안정 분담금(은행세) 도입가 정책 방향
 - 최근 EMU의 체제위기 분석과 향후 전망
- 대한상공회의소 : <http://www.korcham.net>
 - 소셜 커머스 활용실태와 만족도 조사
 - 유가 상승에 따른 물류업계 경영실태 및 애로조사
 - 기업의 핵심인재 현황조사
 -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실태 조사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총생산 (GDP) ¹⁾	억달러	8,447	9,511	10,493	9,309	8,329
GDP 성장률 ²⁾	%	16.9	12.6	10.3	△11.3	△10.5
국민총소득 (GNI) ¹⁾	억달러	8,439	9,525	10,512	9,379	8,372
GNI 성장률 ²⁾	%	16.5	12.9	10.4	△10.8	△10.7
1인당 GNI ¹⁾	달러	17,531	19,722	21,695	19,296	17,175
경제성장률	%	4.0	5.2	5.1	3.1	△0.9
산업구조						
농림어업	%	3.3	3.2	2.9	2.7	2.6
광공업		27.8	27.4	27.5	28.1	28.0
전기가스·수도사업		2.3	2.3	2.2	1.3	1.8
건설업		7.6	7.5	7.4	7.0	6.9
기타 서비스업		59.0	59.7	60.0	60.8	60.7
제조업 평균가동률	%	79.7	80	80.1	77.5	74.6
취업자	천명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농림어업	%	7.9	7.7	7.4	7.2	7.0
광공업		18.1	17.6	17.2	16.9	16.4
건설업		7.9	7.9	7.9	7.7	7.3
기타 서비스업		65.7	66.5	67.2	67.9	69.3
실업률 (ILO기준)	%	3.7	3.5	3.2	3.2	3.6
경상수지		14,981	5,385	5,876	△6,406	40,418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2,683	27,905	28,168	5,994	54,381
서비스수지		△13,658	△18,961	△19,768	△16,734	△16,973
소득수지		△1,563	534	1,003	5,107	3,741
경상이전수지		△2,482	△4,093	△3,527	△773	△731
수출액	억달러	2,844	3,254	3,715	4,220	3,635
수입액		2,612	3,094	3,568	4,352	3,231
총저축률	%	32.1	30.8	30.8	30.5	30.0
민간비중	%	22.5	20.8	20.2	21.2	23.3
정부비중		9.8	10.0	10.6	9.3	6.7
총자본형성	십억원	256,866	268,216	277,729	277,773	236,001
최종소비지출	%	67.7	69.0	69.1	70.0	70.3
민간비중	%	53.8	54.5	54.4	54.7	54.3
정부비중		13.9	14.5	14.7	15.3	16.0
생산자물가상승률	%	2.1	0.9	1.4	8.6	-0.2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2.2	2.5	4.7	2.8

주 : 1) 당해년 경상가격 2) 2000년 기준년가격.

일 경제지표 (2011.3.1기준)

금리

구 분	'09말	'10말	'11.1말	2.25	2.28	3.2	전일비	'10말비
콜금리(1일),%	2.01	2.49	2.75	2.76	2.76	2.75	△0.01	0.26
CD(91일),%	2.86	2.80	3.05	3.16	3.17	3.17	0.00	0.37
국고채(3년),%	4.41	3.38	3.98	3.84	3.84	3.84	0.00	0.46
국고채(5년),%	4.92	4.08	4.40	4.28	4.28	4.28	0.00	0.20
회사채(3년, AA-),%	5.53	4.27	4.76	4.63	4.63	4.63	0.00	0.36

주가

구 분	'09말	'10말	'11.1말	2.25	2.28	3.2	전일비	'10말비
KOSPI지수	1,682.77	2,051.00	2,069.73	1,963.43	1,939.30	1,928.24	△0.57%	△5.99%
·거래대금(억원, 일평균)	42,856	53,969	73,470	50,290	46,985	46,809	△176	△7,160
KOSDAQ지수	513.57	510.69	521.38	509.33	504.46	503.46	△0.20%	△1.42%
외국인 순매수(억원, 기간중)	301,051	39,023	6,851	△32,534	△34,764	△694	34,070	

※ 기간중 : '09말('09.1.1~12.31), '10말('10.1.1~12.31), '11.1말('11.1.1~1.31), 3.3('11.3.1~3.3).

환율

구 분	'09말	'10말	'11.1말	2.25	2.28	3.2	전일비	'10말비
₩/US\$ (종가)	1,164.50	1,134.80	1,121.50	1,126.50	1,128.70	1,128.20	+0.04	+0.59
선물환(NDF, 1개월물)	1,165.90	1,137.00	1,123.60	1,128.70	1,131.00	1,130.50	+0.04	+0.57
₩/¥100	1,264.52	1,393.59	1,367.85	1,374.62	1,374.62	1,377.20	+0.36	+1.19
¥/US\$	92.09	81.43	81.99	81.95	81.66	81.92	△0.32	△0.60
US\$/EUR	1.4325	1.3233	1.3613	1.3815	1.3763	1.3755	△0.06	+3.94
CNY/US\$	6.8279	6.6100	6.5907	6.5747	6.5759	6.5724	+0.05	+0.57

※ '10년 평균 환율 : (₩/US\$) 1,156.3원, (₩/¥100) 1,320.6원

※ '11년 평균 환율('11.1.1~현재) : (₩/US\$) 1,119.3원, (₩/¥100) 1,356.0원

※ 전일비(%) 및 '10말비(%)에서 절상·절하는 대미통화 기준(+는 절상, △는 절하).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09말	'10말	'11.1말	2.25	2.28	3.1	전일비	'10말비
LIBOR(3월, \$)	0.25	0.30	0.30	0.31	0.31	0.31	0.00	0.01
T/NOTE(10년물)	3.83	3.29	3.38	3.43	3.40	3.40	△0.03	0.11
DOW	10,428	11,578	11,892	12,226	12,058	12,058	△1.37	4.15%
NIKKEI	10,546	9,937	10,238	10,624	10,754	10,754	△2.44	2.57%
SANGHAI COMP	3,277	2,808	2,791	2,905	2,919	2,919	△0.17%	3.77%
외평채가산금리 (bp, 2013년물)	59	175	172	163	-	-	3	△12
CDS (bp, 5Y)	86	95	103	101	101	101	0	6
CRS (% , 1Y)	2.25	1.10	2.55	2.14	2.14	2.14	0.11	0.82

유가 · 곡물 · 원자재 · 반도체가격

구 분	'09말	'10말	'11.1말	2.25	2.28	3.1	전일비	'10말비
DUBAI (\$/bbl)	78.04	88.80	94.57	107.41	106.44	109.04	△0.97	17.64
WTI 2월 선물 (\$/bbl)	79.36	91.38	92.22	97.04	99.65	102.21	2.61	8.27
원당(센트/파운드)	26.95	32.12	34.00	29.45	29.26	30.40	△0.65%	△8.90%
밀 (센트/부셀)	542	794	841	817	810	811	△0.86%	1.98%
대두 (센트/부셀)	1,049	1,403	1,413	1,365	1,375	1,394	0.73%	△2.00%
옥수수 (센트/부셀)	415	629	660	731	736	722	0.68%	17.01%
동 (\$/톤)	7,377	9,665	9,680	9,845	9,920	9,830	0.76%	2.64%
알루미늄 (\$/톤)	2,242	2,468	2,495	2,560	2,613	2,585	2.07%	5.88%

※ '10년 평균 유가 : (Dubai) 78.13\$, (WTI) 79.61\$

※ '11년 평균 유가('11.1.1~현재) : (Dubai) 96.46\$, (WTI) 89.85\$.

자료: 일일경제지표,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역내총생산(GRDP) ¹⁾	억원	474,973	513,613	551,484	579,740	657,600
전국대비 구성비 ²⁾	%	5.46	5.85	5.96	6.21	6.73
GRDP 성장률 ²⁾	%	9.6	12.6	7.6	7.0	9.2
1인당 GRDP	만원	2,476	2,664	2,848	2,983	3,370
산업구조	—					
농림어업	%	8.2	7.6	6.7	6.3	6.7
광공업		43.4	44.7	45.9	47.0	53.4
전기가스수도업		4.1	3.9	4.4	2.5	4.8
건설업		9.6	9.3	8.7	9.3	7.3
서비스업 및 기타		34.7	34.4	34.5	34.9	27.8
15세이상인구	천명	1,485	1,517	1,547	1,564	1,588
경제활동인구	천명	956	991	1,021	996	991
취업자	천명	931	967	998	973	961
농림어업	%	23.5	23.6	21.9	19.5	18.8
광공업		15.8	15.5	17.0	17.4	17.1
건설업		6.1	5.8	6.6	5.7	5.8
서비스업 및 기타		54.6	55.1	54.5	57.3	58.3
실업자	천명	25	24	23	24	2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9	526	526	568	597
경제활동참가율	%	64.4	65.3	66.0	63.7	62.4
실업률	%	2.6	2.4	2.2	2.4	3.0
고용률	%	62.7	63.8	64.5	62.2	60.5
무역수지	백만달러	15,656	16,599	21,149	13,380	20,299
수출액	백만달러	33,520	38,961	47,823	42,936	39,428
수입액		17,863	22,362	26,674	29,556	19,129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6	2.4	4.9	2.7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천안시	69,829	77,731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공주시	14,327	15,390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보령시	14,996	15,391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아산시	53,853	55,393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서산시	31,975	32,940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논산시	15,389	14,733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계룡시 ¹⁾	1,764	2,311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금산군	7,422	8,328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연기군	10,999	11,233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부여군	10,189	9,863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서천군	10,427	10,013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청양군	5,353	5,059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홍성군	10,004	10,560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예산군	8,697	9,383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태안군	9,362	10,394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당진군	18,184	19,709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충청남도	292,771	308,432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1) 2003년 이전 : 계룡출장소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8 01	119.9	0.4	6.5	6.9	102.2	0.1
02	120.7	0.7	6.7	6.9	102.5	0.4
03	121.5	0.7	6.9	7.0	102.9	0.3
04	121.4	-0.1	5.6	6.2	102.5	-0.4
05	121.2	-0.2	4.3	5.3	101.9	-0.5
06	121.0	-0.1	3.3	4.5	101.5	-0.4
07	121.3	0.3	3.1	4.1	101.5	-0.0
08	121.7	0.3	3.0	3.9	101.5	0.0
09	121.9	0.1	2.6	3.4	101.4	-0.1
10	122.4	0.4	2.7	3.3	101.5	0.1
11	122.2	-0.1	2.0	2.8	101.1	-0.4
12	121.0	-1.0	-0.3	1.4	99.8	-1.3
2009 01	119.2	-1.5	-3.3	-0.5	98.0	-1.8
02	117.6	-1.3	-5.5	-2.1	96.4	-1.5
03	116.5	-1.0	-6.9	-3.4	95.2	-1.3
04	116.1	-0.3	-6.9	-4.0	94.6	-0.6
05	116.5	0.4	-5.6	-3.9	94.6	0.1
06	118.2	1.4	-2.5	-2.6	95.7	1.0
07	119.7	1.3	0.3	-1.3	96.6	0.9
08	120.8	0.9	2.1	-0.2	97.2	0.5
09	122.3	1.2	4.6	1.4	98.0	0.9
10	123.6	1.1	6.7	2.9	98.8	0.7
11	124.8	1.0	8.5	4.2	99.4	0.6
12	125.6	0.6	9.3	5.1	99.6	0.3
2010 01	126.5	0.7	10.2	6.0	100.0	0.4
02	127.5	0.8	10.7	6.9	100.4	0.4
03	128.4	0.6	10.7	7.5	100.7	0.3
04	128.9	0.4	9.9	7.9	100.7	0.0
05	129.6	0.5	9.1	8.3	100.8	0.1
06	130.4	0.7	8.7	8.6	101.1	0.3
07	131.2	0.6	8.3	8.7	101.4	0.2
08	131.8	0.4	7.6	8.4	101.4	0.0
09	132.1	0.2	6.6	7.8	101.2	-0.2
10	131.9	-0.1	5.2	6.8	100.7	-0.5
11	131.9	-0.0	4.1	5.8	100.3	-0.4
12	132.8	0.7	4.6	5.7	100.6	0.3
2011 01	134.8	1.5	6.5	6.4	101.8	1.1

시장경기동향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자금사정		업황		매출	
	실적	전망	실적	전망	실적	전망
2008	52.9	72.9	57.6	85.8	58.8	84.3
2009	63.6	77.6	68.0	79.1	60.5	78.0
2010	69.7	87.5	70.3	94.4	68.4	94.4
2009 4/4	72.2	85.3	79.8	89.3	71.0	86.9
2010 1/4	64.3	80.2	61.1	94.6	58.3	93.0
2/4	67.0	87.4	66.6	92.6	61.9	92.1
3/4	76.9	89.3	80.6	94.8	79.8	96.1
4/4	70.6	93.3	73.0	95.6	73.8	96.3
2009 02	53.6	58.3	47.6	50.0	41.7	48.8
03	64.3	84.5	73.8	86.9	48.8	88.1
04	59.5	85.7	70.2	84.5	75.0	76.2
05	53.6	79.8	60.7	81.0	50.0	81.0
06	56.0	70.2	57.1	65.5	50.0	64.3
07	73.8	75.0	69.0	78.6	65.5	69.0
08	67.9	77.4	79.8	78.6	61.9	83.3
09	71.4	84.5	77.4	90.5	77.4	92.9
10	69.0	88.1	76.2	95.2	69.0	86.9
11	82.1	88.1	91.7	86.9	82.1	91.7
12	65.5	79.8	71.4	85.7	61.9	82.1
2010 01	57.1	76.2	52.4	78.6	45.2	76.2
02	66.7	76.9	64.3	97.5	70.2	95.1
03	69.0	87.5	66.7	107.7	59.5	107.7
04	71.4	96.2	71.4	105.1	70.2	105.3
05	70.2	87.2	69.0	94.0	58.3	96.1
06	59.5	78.9	59.5	78.8	57.1	75.0
07	70.0	82.9	66.7	73.8	60.7	76.2
08	73.8	82.5	77.4	85.0	75.0	86.5
09	86.9	102.4	97.6	125.6	103.6	125.6
10	69.0	103.8	66.7	114.3	67.9	121.3
11	85.7	95.2	94.0	98.8	96.4	100.0
12	57.1	80.8	58.3	73.8	57.1	67.5
2011 01	53.6	79.8	39.3	79.3	36.9	86.3
02	66.7	89.3	53.6	81.0	48.8	76.2
03	-	102.4	-	115.5	-	109.5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8	926,919	17.6	-	660,475	21.3	-
2009	1,000,673	8.0	-	716,401	8.5	-
2010	1,095,097	9.4	-	796,956	11.2	-
2009 4/4	266,582	6.9	7.5	180,491	5.0	-2.5
2010 1/4	270,000	10.2	1.3	195,812	9.9	8.5
2/4	254,505	5.6	-5.7	188,116	9.1	-3.9
3/4	277,463	11.9	9.0	218,408	17.9	16.1
4/4	293,129	10.0	5.6	194,620	7.8	-10.9
2009 01	90,086	25.9	4.7	67,434	32.5	11.5
02	71,626	-4.3	-20.5	51,086	-6.7	-24.2
03	83,314	10.0	16.3	59,717	13.3	16.9
04	78,135	9.4	-6.2	54,814	11.0	-8.2
05	85,831	11.5	9.8	61,476	15.2	12.2
06	77,042	7.3	-10.2	56,196	9.2	-8.6
07	81,504	6.3	5.8	61,952	7.4	10.2
08	81,952	6.6	0.5	63,234	6.8	2.1
09	84,601	3.5	3.2	60,001	1.3	-5.1
10	87,796	11.4	3.8	58,930	9.1	-1.8
11	85,471	1.2	-2.6	57,330	-0.1	-2.7
12	93,315	8.5	9.2	64,231	6.2	12.0
2010 01	88,900	-1.3	-4.7	63,066	-6.5	-1.8
02	93,492	30.5	5.2	70,492	38.0	11.8
03	87,608	5.2	-6.3	62,254	4.2	-11.7
04	81,181	3.9	-7.3	58,341	6.4	-6.3
05	91,106	6.1	12.2	66,504	8.2	14.0
06	82,218	6.7	-9.8	63,271	12.6	-4.9
07	91,460	12.2	11.2	72,044	16.3	13.9
08	87,203	6.4	-4.7	69,803	10.4	-3.1
09	98,800	16.8	13.3	76,561	27.6	9.7
10	87,095	-0.8	-11.8	61,530	4.4	-19.6
11	81,277	-4.9	-6.7	61,200	6.8	-0.5
12	124,757	33.7	53.5	71,890	11.9	17.5
2011 01	135,449	52.4	8.6	87,033	38.0	21.1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 대)

구 분	총 등록대수			차종별 등록대수			
	등록대수	전년동월차	전월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화물
2008 02	740,455	33,737	2,726	502,260	50,145	185,650	2,400
03	744,029	34,234	3,574	505,481	50,288	185,842	2,418
04	747,224	34,346	3,195	508,335	50,356	186,116	2,417
05	750,043	34,105	2,819	510,904	50,417	186,302	2,420
06	752,196	33,661	2,153	513,034	50,394	186,335	2,433
07	755,197	33,578	3,001	515,739	50,472	186,544	2,442
08	756,214	32,444	1,017	516,862	50,459	186,443	2,450
09	757,287	-	1,073	517,914	50,474	186,449	2,450
10	759,840	30,640	2,553	520,191	50,459	186,734	2,456
11	761,629	-	1,789	521,755	50,515	186,892	2,467
12	762,287	29,393	658	522,574	50,504	186,751	2,458
2009 01	765,469	27,740	3,182	525,564	50,562	186,879	2,464
02	767,231	26,776	1,762	527,267	50,542	186,974	2,448
03	769,205	25,176	1,974	529,048	50,529	187,188	2,440
04	771,889	24,665	2,684	531,278	50,660	187,512	2,439
05	774,965	24,922	3,076	533,905	50,693	187,921	2,446
06	778,867	26,671	3,902	537,455	50,737	188,220	2,455
07	781,641	26,444	2,774	540,068	50,703	188,400	2,470
08	783,277	27,063	1,636	541,673	50,630	188,502	2,472
09	786,508	29,221	3,231	544,551	50,713	188,738	2,506
10	789,874	30,034	3,366	547,552	50,727	189,075	2,520
11	793,405	31,776	3,531	550,759	50,697	189,431	2,518
12	796,918	34,631	3,513	554,070	50,654	189,671	2,523
2010 01	799,644	34,175	2,726	556,506	50,627	189,979	2,532
02	802,175	34,944	2,531	558,906	50,573	190,154	2,542
03	805,400	36,195	3,225	561,742	50,576	190,533	2,549
04	809,436	37,547	4,036	565,070	50,575	191,237	2,554
05	812,325	37,360	2,889	567,579	50,577	191,606	2,563
06	815,377	36,510	3,052	570,488	50,479	191,838	2,572
07	819,864	38,223	4,487	574,616	50,498	192,165	2,585
08	822,465	39,188	2,601	576,924	50,478	192,472	2,591
09	826,121	39,613	3,656	580,147	50,490	192,878	2,606
10	829,848	39,974	3,727	583,435	50,494	193,296	2,623
11	833,491	40,086	3,643	586,724	50,473	193,666	2,628
12	834,391	37,473	900	587,662	50,401	193,685	2,643
2011 01	839,513	39,869	5,122	592,102	50,447	194,284	2,680
02	842,051	39,876	2,538	594,418	50,393	194,546	2,694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8	110.3	4.9	112.5	5.8	97.9	-7.2	110.4	5.0	109.8	5.0	110.2	4.7
2009	113.3	2.7	114.8	2.0	103.5	5.7	113.5	2.8	112.4	2.4	113.2	2.7
2010	116.7	3.0	118.7	3.4	126.8	22.5	116.8	2.9	116.3	3.5	116.6	3.0
2009 4/4	114.0	2.5	115.6	2.7	99.1	4.5	114.3	2.7	113.3	2.5	113.8	2.5
2010 1/4	115.1	2.9	117.0	3.5	111.2	6.1	115.2	2.8	114.7	3.1	115.1	2.9
2/4	116.3	2.7	118.3	3.0	120.7	12.3	116.5	2.6	116.0	3.5	115.9	2.5
3/4	117.3	2.9	119.2	3.1	133.0	29.9	117.4	2.8	116.9	3.5	117.1	2.9
4/4	118.2	3.7	120.1	3.9	142.3	43.6	118.3	3.5	117.7	3.9	118.2	3.9
2009 02	111.9	4.0	112.8	3.2	104.5	0.7	112.0	4.0	111.3	3.7	112.0	4.3
03	112.9	3.9	114.3	3.2	107.3	8.1	113.2	4.1	112.0	3.0	112.7	4.0
04	113.2	3.5	114.9	2.9	111.5	11.5	113.4	3.6	112.3	3.0	113.2	3.8
05	113.2	2.6	114.8	1.5	109.5	10.9	113.5	2.7	112.0	1.9	113.1	2.6
06	113.3	1.9	114.8	0.4	101.5	9.5	113.6	2.0	111.9	1.1	113.1	1.8
07	113.8	1.5	115.4	0.2	102.2	5.7	114.1	1.7	112.6	1.1	113.6	1.2
08	114.0	2.0	115.7	1.0	103.2	4.3	114.2	2.1	113.0	1.7	113.9	1.8
09	114.1	2.2	115.8	1.6	101.9	3.8	114.3	2.2	113.1	1.9	114.0	2.2
10	113.8	2.1	115.4	1.6	100.4	5.8	114.1	2.1	112.9	1.8	113.6	2.0
11	114.0	2.6	115.4	2.5	95.8	3.8	114.2	2.7	113.3	2.5	113.8	2.5
12	114.3	3.1	115.9	3.8	101.0	4.0	114.6	3.2	113.6	3.1	114.0	3.0
2010 01	114.7	3.3	116.4	4.1	105.8	3.1	114.8	3.2	114.2	3.5	114.6	3.2
02	115.1	2.9	117.0	3.7	110.5	5.7	115.2	2.9	114.6	3.0	115.0	2.7
03	115.5	2.3	117.5	2.8	117.4	9.4	115.5	2.0	115.4	3.0	115.6	2.6
04	116.2	2.7	118.5	3.1	124.8	11.9	116.3	2.6	116.0	3.3	115.9	2.4
05	116.4	2.8	118.5	3.2	122.0	11.4	116.7	2.8	116.0	3.6	116.0	2.6
06	116.2	2.6	118.0	2.8	115.4	13.7	116.4	2.5	115.9	3.6	115.8	2.4
07	116.7	2.5	118.5	2.7	121.1	18.5	116.9	2.5	116.1	3.1	116.4	2.5
08	117.0	2.6	118.8	2.7	127.3	23.4	117.1	2.5	116.6	3.2	116.9	2.6
09	118.2	3.6	120.4	4.0	150.7	47.9	118.3	3.5	118.0	4.3	117.9	3.4
10	118.4	4.0	120.7	4.6	150.6	50.0	118.4	3.8	118.1	4.6	118.4	4.2
11	117.7	3.2	119.3	3.4	136.0	42.0	117.8	3.2	117.2	3.4	117.7	3.4
12	118.5	3.7	120.3	3.8	140.2	38.8	118.6	3.5	117.9	3.8	118.4	3.9
2011 01	119.5	4.2	121.6	4.5	140.9	33.2	119.5	4.1	119.2	4.4	119.6	4.4
02	120.6	4.8	123.1	5.2	143.0	29.4	120.6	4.8	120.5	5.1	120.9	5.1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8	42,936	-10.2	-	29,556	10.8	-	13,380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10	54,054	37.1	-	24,893	30.1	-	29,161
2009 4/4	11,825	36.4	7.1	5,558	-5.4	10.4	6,267
2010 1/4	11,714	61.1	-0.9	5,746	36.7	3.4	5,968
2/4	13,434	44.7	14.7	6,204	43.2	8.0	7,230
3/4	14,633	32.5	8.9	6,360	26.4	2.5	8,273
4/4	14,273	20.7	-2.5	6,583	18.4	3.5	7,690
2009 01	1,980	-44.5	-5.2	1,227	-46.9	-29.3	753
02	2,385	-32.0	20.5	1,506	-35.6	22.7	879
03	2,908	-22.0	21.9	1,471	-42.4	-2.3	1,437
04	3,014	-16.9	3.6	1,373	-48.9	-6.7	1,641
05	3,015	-18.0	0.0	1,291	-49.9	-6.0	1,724
06	3,258	-11.8	8.1	1,668	-37.9	29.2	1,590
07	3,473	-11.3	6.6	1,537	-51.4	-7.9	1,936
08	3,560	-17.7	2.5	1,653	-36.6	7.5	1,907
09	4,010	-5.1	12.6	1,843	-33.1	11.5	2,167
10	4,009	3.8	0.0	1,794	-16.5	-2.7	2,215
11	3,906	43.7	-2.6	1,774	-10.9	-1.1	2,132
12	3,910	87.2	0.1	1,990	14.6	12.2	1,920
2010 01	3,661	84.9	-6.4	1,814	47.8	-8.8	1,847
02	3,650	53.1	-0.3	1,901	26.3	4.8	1,749
03	4,402	51.4	20.6	2,041	38.7	7.4	2,361
04	4,358	44.6	-1.0	1,913	39.3	-6.3	2,445
05	4,483	48.7	2.9	1,928	49.3	0.8	2,555
06	4,592	40.9	2.4	2,363	41.7	22.6	2,229
07	4,898	41.0	6.7	2,064	34.3	-12.7	2,834
08	4,935	38.6	0.7	2,071	25.2	0.3	2,863
09	4,800	19.7	-2.7	2,225	20.7	7.4	2,575
10	4,994	24.6	4.0	2,031	13.2	-8.7	2,963
11	4,660	19.3	-6.7	2,147	21.1	5.7	2,513
12	4,619	18.1	-0.9	2,405	20.8	12.0	2,214
2011 01	4,722	29.0	2.2	2,534	39.8	5.4	2,188

고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08	1,564	996	973	24	568	2.4	62.2
2009	1,588	991	961	29	597	3.0	60.5
2010	1,613	1,003	974	29	610	2.9	60.4
2009 4/4	1,598	992	965	27	606	2.8	60.4
2010 1/4	1,605	941	906	35	663	3.7	56.5
2/4	1,610	1,028	1,003	24	582	2.4	62.3
3/4	1,616	1,036	1,006	29	581	2.8	62.3
4/4	1,623	1,007	981	26	615	2.6	60.4
2009 01	1,575	906	880	26	669	2.8	55.9
02	1,577	923	895	27	655	3.0	56.8
03	1,580	959	926	33	621	3.5	58.6
04	1,582	1,008	978	29	575	2.9	61.8
05	1,585	1,020	986	34	565	3.3	62.2
06	1,588	1,037	1,001	36	550	3.5	63.1
07	1,590	1,012	980	32	578	3.2	61.6
08	1,592	1,016	989	26	577	2.6	62.1
09	1,594	1,032	1,005	27	562	2.6	63.1
10	1,596	1,040	1,012	28	556	2.7	63.4
11	1,598	999	972	27	599	2.7	60.8
12	1,600	939	912	27	661	2.9	57.0
2010 01	1,603	932	890	41	672	4.4	55.5
02	1,605	936	896	40	669	4.3	55.8
03	1,606	957	933	24	650	2.5	58.1
04	1,608	1,015	989	25	593	2.5	61.5
05	1,610	1,031	1,006	25	579	2.5	62.5
06	1,612	1,037	1,015	22	575	2.1	63.0
07	1,614	1,037	1,007	30	578	2.9	62.4
08	1,616	1,032	1,006	25	585	2.4	62.3
09	1,618	1,039	1,006	33	580	3.2	62.1
10	1,620	1,033	1,005	28	587	2.7	62.0
11	1,622	1,020	995	25	602	2.4	61.3
12	1,625	968	942	26	657	2.6	58.0
2011 01	1,627	923	899	24	705	2.6	55.2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8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10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08 01	125,478	222,654	348,132	179,675	123,894	303,569
02	128,958	223,342	352,300	182,410	125,155	307,565
03	128,952	225,424	354,376	183,854	126,840	310,694
04	128,760	226,609	355,369	186,430	128,308	314,738
05	133,341	228,669	362,010	188,445	129,441	317,886
06	134,776	231,357	366,133	193,627	130,960	324,587
07	132,663	231,903	364,566	195,926	132,472	328,398
08	136,711	232,611	369,322	197,574	134,176	331,750
09	137,127	233,007	370,134	199,832	135,717	335,549
10	137,918	234,644	372,562	201,785	136,745	338,530
11	137,758	237,832	375,590	205,182	137,174	342,356
12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01	135,826	243,786	379,612	207,195	137,630	344,825
02	140,842	245,306	386,148	210,165	138,195	348,360
03	137,463	248,756	386,219	211,587	137,786	349,373
04	137,382	253,042	390,424	212,577	137,261	349,838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656	265,391	402,047	221,293	145,453	366,746
02	143,744	265,790	409,534	221,549	145,823	367,372
03	139,853	268,910	408,763	223,456	146,381	369,837
04	143,809	270,034	413,843	224,353	147,201	371,554
05	145,550	271,105	416,655	224,457	147,920	372,377
06	144,072	274,403	418,475	223,655	148,605	372,260
07	143,542	274,235	417,777	224,489	149,021	373,510
08	145,929	273,364	419,293	225,242	150,623	375,865
09	146,935	275,753	422,688	226,105	151,381	377,486
10	148,884	278,370	427,254	228,808	152,127	380,935
11	148,895	280,774	429,669	229,868	152,573	382,441
12	148,607	283,939	432,546	228,745	154,247	382,992
2011 01	149,945	285,728	435,673	228,042	153,447	381,489

지역별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8	0.64	0.70	0.89	0.19	1.55	0.23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10	0.17	0.19	0.33	0.20	0.02	0.05
2009 4/4	0.35	0.48	0.72	0.06	0.02	0.02
2010 1/4	0.16	0.20	0.27	0.23	0.00	0.05
2/4	0.18	0.20	0.35	0.21	0.04	0.07
3/4	0.20	0.25	0.54	0.02	0.12	0.03
4/4	0.14	0.14	0.18	0.41	0.04	0.06
2009 01	0.44	0.46	0.54	0.22	1.80	0.03
02	0.56	1.04	0.18	0.14	0.12	0.00
03	0.32	0.60	0.10	0.04	0.07	0.00
04	0.20	0.25	0.05	0.69	0.42	0.00
05	0.13	0.08	0.08	1.01	0.15	0.00
06	0.24	0.33	0.04	0.49	0.57	0.00
07	0.13	0.16	0.00	0.28	0.62	0.00
08	0.31	0.56	0.08	0.15	0.08	0.01
09	0.39	0.73	0.01	0.09	0.16	0.02
10	0.20	0.33	0.05	0.01	0.05	0.06
11	0.45	0.76	0.46	0.12	0.02	0.00
12	0.40	0.35	1.66	0.05	0.00	0.00
2010 01	0.09	0.12	0.09	0.05	0.00	0.04
02	0.29	0.49	0.11	0.55	0.00	0.00
03	0.10	0.02	0.61	0.06	0.00	0.08
04	0.11	0.04	0.40	0.17	0.01	0.10
05	0.19	0.25	0.26	0.25	0.10	0.05
06	0.24	0.30	0.38	0.20	0.00	0.05
07	0.30	0.39	0.71	0.00	0.36	0.01
08	0.22	0.25	0.65	0.00	0.00	0.05
09	0.09	0.10	0.27	0.07	0.00	0.02
10	0.07	0.02	0.01	0.74	0.02	0.04
11	0.22	0.29	0.25	0.25	0.08	0.08
12	0.13	0.12	0.27	0.23	0.01	0.05
2011 01	0.20	0.16	0.73	0.14	0.11	0.00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 %)

구분	토지거래(천㎡)		건축허가(㎡)		건축착공(㎡)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 월(기)비	면적	전년동 월(기)비	면적	전년동 월(기)비	호수	전년동 월(기)비
2008	200,048	8.5	8,533,277	-14.2	5,302,243	-23.0	190,241	59.7
2009	270,249	35.1	7,203,977	-15.6	5,302,140	0.0	189,970	-0.1
2010	210,392	-22.1	6,636,749	-7.9	6,347,493	19.7	141,946	-25.3
2009 4/4	57,245	32.1	2,051,642	-30.5	1,881,961	43.5	42,081	-10.2
2010 1/4	45,610	-40.1	1,399,393	-14.0	1,435,241	52.9	40,044	-22.3
2/4	49,753	-35.7	2,096,181	18.0	1,903,299	45.3	38,107	-25.6
3/4	41,451	-30.3	1,447,506	-17.2	1,287,048	9.9	34,666	-23.2
4/4	73,578	28.5	1,693,669	-17.5	1,742,905	8.5	29,129	-30.8
2009 01	13,008	-17.6	654,850	33.7	251,229	-59.8	16,349	16.2
02	29,816	100.5	391,595	-27.3	274,115	-12.3	16,926	13.7
03	33,316	32.6	580,477	-20.3	413,376	-20.6	18,251	16.7
04	28,297	50.2	390,564	-53.1	350,997	-42.4	17,939	10.6
05	23,397	19.2	487,434	6.0	522,731	48.5	17,229	1.9
06	25,663	36.9	899,756	53.8	436,107	16.6	16,063	-4.1
07	22,873	21.3	373,057	-48.4	331,433	-35.7	16,342	-1.8
08	18,848	35.4	845,405	29.2	459,092	22.8	14,595	-9.2
09	17,786	62.4	529,197	-7.1	381,099	23.6	14,195	-12.3
10	15,543	-7.3	400,493	-46.1	479,221	-35.5	13,656	-12.8
11	18,240	47.1	495,128	-39.2	927,808	196.9	14,148	-7.4
12	23,462	65.4	1,156,021	-17.1	474,932	85.4	14,277	-10.3
2010 01	14,782	13.6	399,707	-39.0	323,545	28.8	13,950	-2.3
02	16,923	-43.2	461,775	17.9	409,905	79.5	13,188	-5.5
03	13,905	-58.3	537,911	-7.3	701,791	69.8	12,906	-2.1
04	14,459	-48.9	637,912	63.3	542,246	54.5	12,973	0.5
05	16,252	-30.5	591,696	21.4	609,255	16.6	12,621	-2.7
06	19,042	-25.8	866,573	11.0	751,798	72.4	12,513	-0.9
07	16,773	-26.7	580,512	55.6	461,472	39.2	12,222	-2.3
08	14,787	-21.5	487,208	-42.4	432,427	-5.8	11,593	-5.1
09	9,891	-44.4	379,786	-28.2	393,149	3.2	10,851	-6.4
10	19,172	23.3	400,493	-8.9	464,780	-3.0	10,285	-5.2
11	21,637	18.6	812,945	64.2	666,098	34.5	9,824	-4.5
12	32,769	39.7	480,231	-28.6	591,027	24.4	9,020	-8.2
2011 01	14,265	-3.5	414,632	3.7	255,721	-2.1	8,750	-37.3

주택매매 및 전세매매지수

(2008.12=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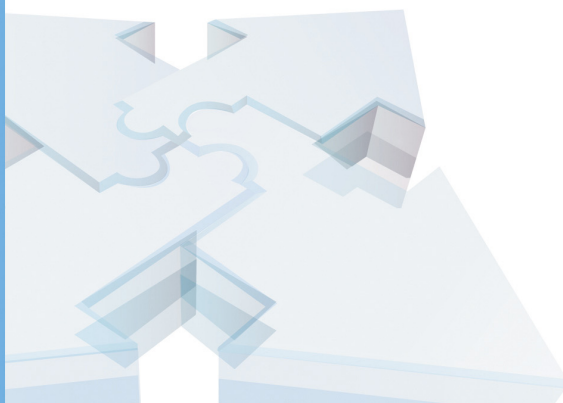
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8 02	98.6	0.2	-0.1	97.7	100.9	96.1	96.6	1.9	-0.1	96.0	97.9	97.1
03	98.5	0.2	-0.1	97.5	100.9	96.6	96.7	1.4	0.1	96.2	97.8	97.3
04	98.5	0.0	-0.1	97.4	100.9	96.6	97.0	1.6	0.3	96.4	98.3	97.3
05	98.5	0.0	0.0	97.5	100.9	96.6	97.1	1.7	0.2	96.7	98.3	97.3
06	98.8	0.3	0.3	98.0	100.6	97.5	97.7	2.4	0.6	97.1	99.1	97.4
07	99.1	0.6	0.3	98.5	100.5	97.9	98.0	2.4	0.3	97.3	99.4	98.0
08	99.3	0.7	0.2	98.8	100.3	99.3	98.6	2.8	0.6	97.8	100.0	99.5
09	100.1	1.1	0.8	100.0	100.5	99.7	99.5	3.4	0.9	99.3	100.0	100.0
10	100.3	1.2	0.2	100.2	100.5	99.7	100.0	3.4	0.5	100.0	100.0	100.0
11	100.2	1.3	0.0	100.2	100.3	99.7	100.2	3.5	0.2	100.3	100.0	100.0
12	100.0	1.1	-0.2	100.0	100.0	100.0	100.0	3.3	-0.2	100.0	100.0	100.0
2009 01	99.7	0.9	-0.3	99.6	99.7	100.2	99.6	3.0	-0.4	99.3	100.0	100.2
02	99.5	0.9	-0.2	99.2	99.7	100.2	99.2	2.8	-0.4	98.9	99.7	100.2
03	99.3	0.7	-0.2	99.0	99.5	100.2	99.1	2.5	-0.1	98.5	100.0	100.2
04	99.2	0.8	0.0	98.9	99.6	100.5	98.9	2.0	-0.2	98.6	99.3	100.2
05	99.1	0.6	-0.1	98.8	99.2	100.5	98.9	1.8	0.0	98.6	99.3	100.2
06	99.1	0.2	0.0	98.7	99.3	100.5	98.8	1.1	-0.1	98.5	99.1	100.2
07	99.0	-0.1	0.0	98.6	99.3	100.5	99.0	1.0	0.2	98.6	99.5	100.3
08	99.0	-0.3	0.0	98.8	98.9	100.5	99.1	0.5	0.1	98.7	99.5	100.3
09	99.3	-0.8	0.3	99.1	99.1	101.3	99.7	0.1	0.6	99.0	100.2	100.9
10	99.8	-0.5	0.5	99.4	99.8	101.5	100.0	0.0	0.3	99.4	100.0	103.5
11	99.9	-0.3	0.1	99.7	99.8	101.5	100.2	0.0	0.3	99.7	100.3	103.5
12	100.0	0.0	0.0	99.8	99.8	101.5	100.3	0.3	0.1	99.9	100.3	103.4
2010 01	100.0	0.3	0.0	99.8	99.8	101.5	100.4	0.8	0.1	100.0	100.5	103.4
02	100.1	0.6	0.1	100.0	99.8	101.5	100.6	1.4	0.2	100.4	100.5	103.4
03	100.2	0.9	0.1	100.2	99.8	101.5	101.1	2.0	0.5	100.9	101.0	103.5
04	100.1	0.8	-0.1	100.3	99.2	101.9	101.6	2.8	0.5	101.2	101.9	103.7
05	100.1	1.0	0.0	100.4	99.2	102.2	102.5	3.6	0.9	101.7	103.4	104.4
06	100.1	1.1	0.0	100.4	99.2	102.4	102.5	3.7	0.0	102.2	102.9	104.1
07	100.1	1.1	0.0	100.5	99.2	102.4	102.6	3.6	0.1	102.7	102.9	104.1
08	100.0	1.0	-0.2	100.6	98.7	102.4	102.8	3.7	0.2	103.3	102.9	104.2
09	100.0	0.7	0.0	100.7	98.7	102.6	103.7	4.1	0.9	103.8	104.6	104.9
10	100.0	0.3	0.0	100.8	98.7	102.6	104.6	4.6	0.8	104.4	105.8	105.9
11	100.2	0.3	0.2	101.1	98.7	103.2	105.0	4.7	0.4	105.5	105.4	106.5
12	100.3	0.4	0.1	101.3	98.7	103.2	105.4	5.1	0.4	106.3	105.5	106.5
2011 01	100.5	0.5	0.1	101.6	98.7	103.2	105.8	5.4	0.4	107.0	105.6	106.5
02	100.8	0.7	0.3	102.1	98.7	103.2	106.6	5.9	0.7	108.1	106.0	106.6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남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및 해설



이용자를 위하여

1.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시계열자료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환산(실질화),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의 조정 등으로 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의 최근 2~3개월 수치는 각각 잠정치입니다.
4. 본 책자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정점 (Peak)
 - T : 저점 (Trough)
 - - : 해당사항 없음 (Not Available)
5. 현재 충남지역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종합지수만 작성되고 있으며,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는 향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6.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나 경기종합지수에 관한 제안 또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담당기관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박 용 진	042-220-2667
충남발전연구원	백 운 성	041-840-1162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

구 분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2005=100)		대형소매점판매지수(2005=100)	
	천명	전월비(%)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08 01	750.9	0.8	148.3	1.2	116.9	1.0
02	756.8	0.8	150.7	1.6	118.8	1.7
03	759.5	0.4	152.7	1.3	122.7	3.3
04	759.3	-0.0	153.4	0.4	124.3	1.4
05	758.5	-0.1	155.3	1.3	125.0	0.5
06	762.0	0.5	157.1	1.1	125.2	0.2
07	764.0	0.3	157.3	0.1	125.8	0.5
08	768.0	0.5	158.2	0.5	126.7	0.7
09	766.3	-0.2	159.0	0.5	126.9	0.1
10	770.4	0.5	160.3	0.8	128.0	0.9
11	770.9	0.1	157.6	-1.7	131.4	2.6
12	770.6	-0.0	150.7	-4.4	131.3	-0.0
2009 01	761.3	-1.2	146.4	-2.9	131.9	0.4
02	753.9	-1.0	144.1	-1.5	125.8	-4.7
03	742.4	-1.5	144.1	-0.0	126.4	0.5
04	741.6	-0.1	145.3	0.8	125.2	-1.0
05	742.8	0.2	150.5	3.6	129.5	3.5
06	747.2	0.6	161.1	7.0	130.1	0.4
07	744.3	-0.4	171.9	6.7	131.1	0.8
08	744.5	0.0	181.0	5.3	130.9	-0.2
09	750.5	0.8	189.1	4.5	131.3	0.3
10	755.2	0.6	194.8	3.0	133.1	1.4
11	756.0	0.1	198.7	2.0	135.7	2.0
12	750.3	-0.8	202.3	1.9	138.4	2.0
2010 01	750.1	-0.0	205.0	1.3	139.4	0.7
02	752.0	0.3	206.7	0.8	141.1	1.2
03	756.6	0.6	208.4	0.8	140.0	-0.8
04	760.4	0.5	209.8	0.6	137.8	-1.6
05	762.6	0.3	212.4	1.3	135.4	-1.7
06	764.0	0.2	215.1	1.2	135.4	-0.0
07	765.2	0.2	216.8	0.8	137.9	1.9
08	764.8	-0.0	220.0	1.5	137.4	-0.4
09	762.1	-0.4	222.0	0.9	137.2	-0.2
10	755.6	-0.9	225.1	1.4	133.7	-2.5
11	753.5	-0.3	227.0	0.8	130.2	-2.6
12	755.2	0.2	226.8	-0.1	143.9	10.5
2011 01	760.2	0.7	228.2	0.6	165.2	14.8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구 분	전력소비량		수출액(실질)		수입액	
	Mkw	전월비(%)	천불	전월비(%)	천불	전월비(%)
2008 01	2,439,134.4	0.9	4,102,078.1	-1.8	1,896,434.2	-0.9
02	2,462,481.2	1.0	4,077,449.7	-0.6	1,913,214.4	0.9
03	2,489,219.5	1.1	4,015,711.6	-1.5	1,948,869.1	1.9
04	2,495,922.5	0.3	3,918,190.0	-2.4	1,921,273.0	-1.4
05	2,512,687.9	0.7	3,779,208.5	-3.5	1,856,151.7	-3.4
06	2,525,409.2	0.5	3,597,446.0	-4.8	1,798,024.1	-3.1
07	2,544,271.8	0.7	3,534,855.4	-1.7	1,832,928.0	1.9
08	2,557,306.4	0.5	3,523,067.1	-0.3	1,832,424.7	-0.0
09	2,563,006.5	0.2	3,548,282.2	0.7	1,853,122.2	1.1
10	2,592,296.4	1.1	3,555,437.1	0.2	1,827,589.8	-1.4
11	2,586,037.0	-0.2	3,473,114.5	-2.3	1,841,902.1	0.8
12	2,553,407.0	-1.3	3,329,302.3	-4.1	1,827,831.6	-0.8
2009 01	2,537,137.4	-0.6	3,221,711.2	-3.2	1,688,079.5	-7.6
02	2,519,331.4	-0.7	3,104,932.5	-3.6	1,637,244.5	-3.0
03	2,505,141.8	-0.6	3,067,990.9	-1.2	1,547,558.1	-5.5
04	2,496,701.1	-0.3	3,077,398.4	0.3	1,480,643.4	-4.3
05	2,503,787.1	0.3	3,174,479.2	3.2	1,382,016.5	-6.7
06	2,549,210.5	1.8	3,366,406.4	6.0	1,356,663.9	-1.8
07	2,580,218.7	1.2	3,540,948.7	5.2	1,393,389.0	2.7
08	2,614,830.8	1.3	3,637,950.0	2.7	1,388,263.4	-0.4
09	2,656,591.7	1.6	3,713,543.7	2.1	1,414,917.2	1.9
10	2,696,393.7	1.5	3,788,025.5	2.0	1,445,091.1	2.1
11	2,749,918.8	2.0	3,888,837.2	2.7	1,485,408.1	2.8
12	2,803,504.0	1.9	4,012,875.2	3.2	1,507,421.8	1.5
2010 01	2,876,230.9	2.6	4,123,066.3	2.7	1,521,423.1	0.9
02	2,942,057.0	2.3	4,251,081.9	3.1	1,541,219.6	1.3
03	3,002,336.8	2.0	4,350,304.5	2.3	1,545,496.1	0.3
04	3,053,350.5	1.7	4,444,675.7	2.2	1,538,515.2	-0.5
05	3,102,286.7	1.6	4,559,333.1	2.6	1,546,980.5	0.6
06	3,142,582.9	1.3	4,646,511.6	1.9	1,590,161.8	2.8
07	3,165,124.5	0.7	4,752,875.8	2.3	1,620,703.0	1.9
08	3,197,543.0	1.0	4,825,096.9	1.5	1,631,801.1	0.7
09	3,230,304.1	1.0	4,870,082.1	0.9	1,646,806.1	0.9
10	3,262,241.5	1.0	4,884,486.6	0.3	1,654,152.0	0.4
11	3,288,050.9	0.8	4,859,316.4	-0.5	1,665,738.8	0.7
12	3,326,737.3	1.2	4,849,763.8	-0.2	1,637,603.9	-1.7
2011 01	3,378,911.3	1.6	4,895,961.9	1.0	1,657,590.0	1.2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절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개요

1)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 가공통계
- 승인번호 : 제 21308 호

2) 작성연혁

- 2000. 7. : 통계작성 승인
- 2009. 4. : 통계작성 수정승인

3) 작성목적

-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무역 등 경제 각 부분의 지표 중에 경기를 잘 반영하는 주요지표를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경기종합지수에 의하여 전체 경기의 변화방향, 국면, 전환점을 판단,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
- 지역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 · 평가 등의 기초자료 제공

4) 구성지표(6개)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5) 작성부문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률, 순환변동치

6) 작성주기 및 결과공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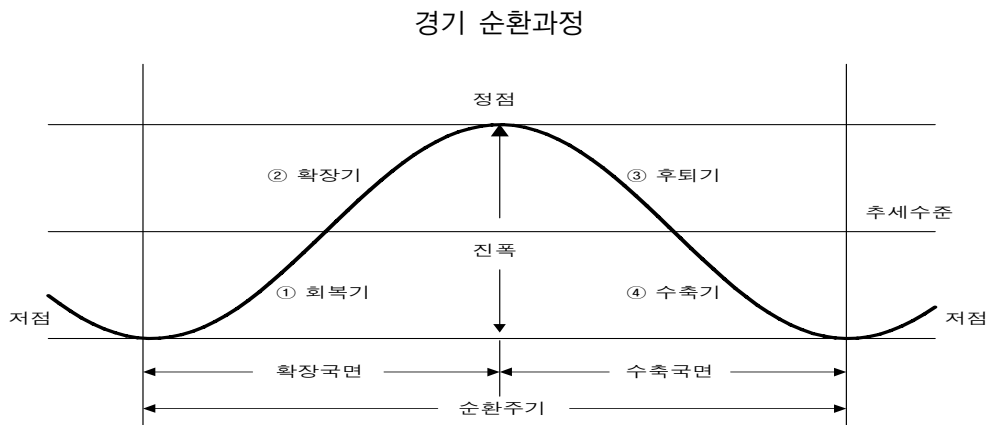
- 주 기 : 매월
- 공표방법 및 시기 : 발간물 및 인터넷 게재 (작성대상월 익익월 20일경)
- 공표범위
 - 지역 : 충청남도
 - 내용 : 동행종합지수 및 구성지표

7) 기타 이용상의 유의점·제약요인

- 경기변동은 선행·동행·후행지수를 동시에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동행지수만 작성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
- 계절변동요인,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및 순환변동치 산출 등의 방법이 상이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경기순환 국면

- 경기순환이란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
- 경기순환의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를 경제활동이 위축된 수축국면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주로 이용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하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간의 차이를 순환진폭이라 함



기준순환일

- 기준순환일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변동에서 국면전환이 발생하는 경기전환점을 의미
-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과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이 있고, 개별 경기지표에서의 전환점은 특수순환일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추세성장률을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에서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후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적으로 발표
- 충청남도는 지역단위로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한 이후인 1990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경기지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을 설정

충청남도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구 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90.1	92.1	93.1	24	12	36
제2순환기	93.1	96.7	98.9	42	24	66
제3순환기	98.9	00.10 ¹⁾		26		

주) 1)은 잠정치임.

경기순환과 경기지표의 변동요인

- 일반적인 경기지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계절요인 : 일년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 불규칙요인 : 천재지변, 파업 등에 따른 단기적·우발적 변동
 - 추세요인 :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에 의한 장기적 변동
 - 순환요인 :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변동하는 요인
- 경기분석에는 이들 요인 중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고 추세·순환치 또는 순환변동치가 이용됨

순환변동치와 증감률

- 경기지표는 계절조정계열(추세·순환치)의 전월(기)비와 순환변동치, 원계열의 전년동월(기)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경기 국면과 전환점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며,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함
- 전월(기)비가 추세치 전월비를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 통과할 때가 경기전환점이 됨. 전월비가 가장 큰 시점과 가장 작은 시점은 추세·순환변동치의 변곡점일뿐 경기전환점과는 무관
- 전년동월(기)비도 전월비처럼 추세치 전년동월(기)비와의 관계에 의하여 국면 및 전환점을 판정하며, 전년동월(기)비의 정·저점은 경기전환점과는 무관하며, 변곡점의 위치, 국면지속기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짐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전환점과 속도·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 지역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
- 충청남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동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할 계획으로 있음
 - **동행종합지수** : 공급측면의 생산지수, 노동투입량(비농가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수출액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선행종합지수** : 투자관련 허가·수주지표나 재고율, 통화량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에측에 이용
 - **후행종합지수** : 재고, 금리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

충남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량기법

- 지역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계량기법은 통계청의 작성방법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

1) 개별 구성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 경기종합지수의 작성에는 경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지표를 선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개별 시계열자료의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요인은 X-12-ARIMA방법으로, 불규칙요인은 불규칙정도에 따라 3 또는 6개월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

- ① 개별 구성 지표들의 비경기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조정(X-12-ARIMA) 및 불규칙조정(3또는6개월말항 이동평균)을 하여 추세순환계열($X_{i,t} = T_{i,t} \times C_{i,t}$)을 산출
- ② 구성 지표별로 전월대비 증감률(대칭변화율($Y_{i,t}$): symmetric percent changes)을 산출

- ㉠ 수준지표(level indicators)인 경우

$$Y_{i,t} = \frac{X_{i,t} - X_{i,t-1}}{X_{i,t} + X_{i,t-1}} \times 200$$

- ㉡ 비율지표(ratio indicators)와 영(0) 또는 음수가 포함된 경우

$$Y_{i,t} = X_{i,t} - X_{i,t-1}$$

여기서, $i = 1, 2, \dots, N$ (구성지표), $t = 2, 3, \dots, T$ (시점)

2) 구성지표의 표준화

- 구성지표의 표준화란 구성지표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순환진폭(cyclical amplitude)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구성지표의 순환진폭이 평균적으로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것
- ③ 진폭(변동폭)이 큰 하나의 구성 지표에 의해 종합지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각 구성 지표의 대칭변화율($Y_{i,t}$)을 절대치평균인 표준화인자(S_i)로 나누어 표준화증감률($Z_{i,t}$)을 산출

$$Z_{i,t} = \frac{Y_{i,t}}{S_i} \quad \text{단, } S_i = \frac{\sum_{t=2}^T |Y_{i,t}|}{T-1} \text{ (표준화인자)}$$

- ④ 표준화증감률($Z_{i,t}$)의 합을 구성지표수로 나누어 평균증감률(AC_t)을 산출

$$AC_t = \frac{\sum_{i=1}^N Z_{i,t}}{N}$$

3) 지수화

- 동행종합지수는 매월의 평균증감률을 누적하여 원지수를 계산한 뒤, 기준년도(2005년)로 조정하여 산출

- ⑤ 매월의 평균증감률(AC_t)을 누적하여 지역별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산출(시작년월=100)

$$RCI_t = RCI_{t-1} \times \frac{200 + AC_t}{200 - AC_t} \quad \text{단, } RCI_1 = 100$$

- ⑥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기준년도(2005년)로 조정한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를 산출(기준년도=100)

$$CI_t = \frac{RCI_t}{BASE} \times 100 \quad \text{단, } BASE \text{는 기준년도의 } RCI_t \text{의 평균}$$

4) 경기순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

- 동행종합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와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증가추세를 제거하고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만을 추출하여 순환변동치를 산출
-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 동행종합지수의 보조지표로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산출하여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 ⑦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는 상승추세가 너무 강하여 지수 상에서 경기속도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면 및 전환점 등 경기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순환변동치를 산출

$$C_t = \frac{CI_t}{T_t} \times 100$$

여기서, T_t 는 H-P 필터 방법으로 산출



충청남도 경제지원시책

2011년 충남형 강소기업 모집

- 기 간 : 2011. 4. 25 ~ 5. 11
 - 접 수 처 : 시·군 기업지원 부서,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충남 지역본부, 충남경제진흥원, 충남테크노파크
 - 대 상 : 도내 공장등록을 필하고 3년 이상 가동 중인 업체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상~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으로서 재무구조가 건실하거나 R&D 투자, 기술인력 보유 등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 해외시장 개척활동 등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등
 - 지원사항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혁신형 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기존기업 대비 2배
 - 기술 및 인력지원,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대, 특허 지원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SOS충남넷(giupsos.chungnam.net) 또는
도 기업지원과와 해당 시군 기업지원과(지역경제과)로 문의(042-220-3299)

2011년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지원계획

- 접 수 : 지원자금 소진시까지, 시군 지역경제부서
 - 지원대상 : 도·소매업 및 상품 중개업자, 체인사업자 및 상점가조합, 상인회 등
 - 지원내용 : 점포의 내부구조, 진열대, 외부간판 등을 현대구조로 개선하는 사업
 - 지원규모 : 10억원
 - 융자조건 : 업체당 1억원 이내(대출금리 연 3.0%)
 - 융자기간 : 8년(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경제정책과로 문의(042-220-3212)

2011년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경영혁신사업 지원계획

- 접 수 : 2011. 2. 25 ~ 3. 14, 시군 지역경제부서
 - 지원대상 : 시장 상인회, 상점가 진흥조합, 시장관리자 등
 - 지원내용 : 2개 분야 5개 사업
 - 경영혁신 및 상인교육, 구조개선 공동사업 및 지역상권 활성화 촉진
 - 지원규모 : 4억원(공동마케팅 1억원, 구조개선 공동사업 2억원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일자리경제정책과로 문의(042-251-2676)

2011년 전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11. 3. 2. ~ 6. 30 ※ 후반기 : 2011. 8. 1. ~ 11. 30.
- 고용계획 : 1,185명
- 사업비 : 5,993백만원(국비 2,996, 도비 624, 시군비 2,373)
- 대상사업 : 2개 분야 15개 사업 182개 사업장
 - 중소기업 지원, 폐자원 재활용, 취약계층 집수리, 문화공간 및 체험장 조성
 - 마을기업 육성, 미취업 청년층 일자리 창출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및 시군 일자리 업무 관련 부서로 문의(042-251-2679)

2011년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계획

- 접 수 : 2011. 3. 7 ~ 3. 28, 도 기업지원과
- 지원대상 : 도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 단독 또는 컨설팅사와 사업 참여협약을 체결한 기업
 - ※ 벤처·Inno-Biz기업, 신기술·신제품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창업기업 우대
- 지원분야 : CE(유럽공동마크) 등 84종(제품인증) 등
- 지원규모 : 인증 획득비용의 60% 지원(규격당 8백만원 한도)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기업지원과로 문의(042-220-3313)

2011년 중소기업 해외지사화 사업 희망업체 모집

- 접 수 : 연중 수시모집,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
- 모집대상 : 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 수출·제조업체
- 모집규모 : 80업체 내외
- 지원규모 : 총 지원금액의 60%(업체부담 4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국제통상과로 문의(042-251-2173)

2011년 바이어 찾기 및 맞춤형 해외시장조사 참여 희망업체 모집

- 접 수 : 연중 수시모집, 코트라 홈페이지(www.kotra.or.kr)
- 모집대상 : 도내 소재(본사, 공장) 중소 제조업체
- 모집규모 : 80업체 이상
- 지원규모 : 업체당 150만원(거래선 발굴, 해외시장조사, 원부자재 공급선 등)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및 국제통상과로 문의(042-251-2173)



월간 충남경제 원고 게재 목록

2010. 1월호

2010년 충청남도 산업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충청남도 권희태

2010년 경제전망 산업연구원 강두용

GRDP로 살펴보는 충남경제

충청남도 조한석,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2010. 2월호

2010년 중국경제에 대한 5가지 질문

한남대학교 정상은

충남의 최근 수출입 동향과 통상전망

충청남도 이재관

기후변화와 저탄소 경제의 도래

한국무역협회 장현숙

2010. 3월호

청년실업과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미래

한국개발연구원 김용성

2010년도 노동정책 방향 및 고용지원사업

대전지방노동청 고복현

녹색성장, 그리고 녹색 일자리 창출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2010. 4월호

3D 홀시대의 개막, 입체영상 '다가온 미래'

디지털타임즈 이근형

디스플레이 산업 현황 및 발전 전망

경희대학교 장진

녹색성장, 그리고 그린전기차

충남테크노파크 이덕규

2010. 5월호

문화산업, 감성형 융합콘텐츠 시대로의 이행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설기환

스토리텔링을 통한 무령왕의 재발견

공주대학교 정재윤

백제금동대향로의 부활 "서기행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동연

2010. 6월호

충남 산업의 고품질 유희유, 디자인

충남발전연구원 권영현

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 브랜드 전략방안

그린나라 조용진

국가 디자인 정책과 주요 사업

한국디자인진흥원 이영선

2010. 7월호

충남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육성전략

충남발전연구원 이인배

1년 365일, 축제 한마당

건양대학교 지진호

충남 생태관광의 지향점

충남발전연구원 정옥식

2010. 8월호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과 한국경제

한남대학교 정상은

최근 경제동향과 기준금리 동결의 배경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수출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충남발전연구원 김양중

2010. 9월호

**성공적인 「충남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제언**

충남발전연구원 임준홍 · 김양중 · 송두범
DTI 규제 완화와 주택시장
충남발전연구원 조수희

2010. 10월호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미·중간 환율이슈와 글로벌 불균형
공주대학교 남수중

2010. 11월호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 2차전지

한서대학교 이영훈
세종시 부동산시장 전망
목원대학교 정재호 · 충남발전연구원 조수희

2010. 12월호

우리 경제의 최근 동향과 2011년도 전망

한국개발연구원 김현욱
2010년 충남의 주요 경제이슈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신동호 · 김양중 · 송두범 · 김경태

2011. 1월호

2011년 충청남도 경제도정 운영방향

충청남도 권희태
충남 일자리 공시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
충남발전연구원 신동호

2011. 2월호

2010년 충남의 수출입 동향 및 2011년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백운성 · 김윤아
충남의 부동산시장 동향 및 전망
충남발전연구원 임형빈

2011. 3월호

충청광역경제권 발전정책의 전개와 성공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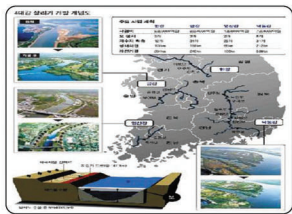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권오창
국제 유가의 상승이 주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충남발전연구원 고승희



“백년 안전을 약속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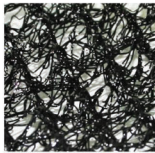
(주)에스엠테크텍스

- 지오그리드 (조달청 우수제품, 국내 최대 공급량)
- 호안식생매트



■ 호안식생매트

Coatve® - Mat



사 면 보 호

침식 및 제방유실 방지

- 3차원 입체 구조
⇒ 토양유출을 방지
- 영구적 침식방지
⇒ 강도, 신도를 충족하는 합성고분자

+

식 생 녹 화

조기녹화, 항구적 식생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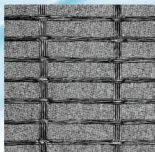
- 항구적 식생 구조
⇒ 토양유실을 방지
- 조기녹화
⇒ 흡습층 + 씨드 + 비료 (영양분)

➔

호 안 용
식생매트
코베매트

■ 지오그리드 (조달청 우수제품, 국내 최대 공급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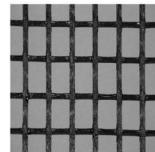
Coatve® - grid CH



▶ HDPE + PET 지오그리드

- 최소의 크리프 감소계수
- 튼튼한 구조
- 향상된 내사공성

Coatve® - grid WD



▶ PVC + PET 지오그리드

- 최소의 크리프 감소계수
- 시공의 편리성

■ 수직보호망(건축용 섬유), 광고용 PVC 매쉬, PE 타포린, Fiberglass screen

Tel. 041)734-2511(대) Fax. 041)734-2411

위 기업은 2010년 충청남도가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지원합니다.

주최 충청남도 · 금산군 주관 | 재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

Ginseng,
Root of Life

2011 World Ginseng Expo, Geumsan, Korea

2011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11.09.02
— 10.03

충남 금산 국제인삼유통센터 일원